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사 학 위 논 문

노인의 취업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2011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장 백 기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황진수

노인의 취업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Elderly's Employment
Activity on Their Subjective Quality of Lif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2011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장 백 기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황진수

노인의 취업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Elderly's Employment
Activity on Their Subjective Quality of Lif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위 논문을 정책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장 백 기

장백기의 정책학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0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감사의 글

박사과정에 진학한 때가 2005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87년부터 민주노총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의 중심 간부 역할을 해왔지만 15년간의 해고생활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고, 아버님 병세 또한 위급하여 노동운동 포기를 놓고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복직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군사정권에 의한 부당한 해고는 논문을 준비하던 마지막학기 10월에 복직되었는데 17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복직으로 논문은 중단되었습니다.

곧 쓰겠다던 논문은 복직이후 바쁜 일로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도교수이신 황진수 교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학기로 정년을 맞으시는 교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니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논문을 낼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는 약속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논문을 심사 해주셨던 김백유 교수님, 정진택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까지 챙겨주셨던 전서울대 최일섭 교수님과 지방에 계시면서도 매번 올라오셔서 지도해 주신 평택대학교 진세혁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꼭 써야 하는 특별한 이유, 그건 아내인 최장희씨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이 학위도 당신이 도와주었기에 가능했고 모든 일이 다 당신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평소 아꼈던 말 ‘사랑합니다’는 이렇게 인쇄해서 드립니다. 농활대장 역할을 잘한 미래의 영화감독 큰아들 현호, 배우를 꿈꾸는 작은아들 현민이, 조카 초롱, 초은, 아린이도 고마운 사람들입니다.(두리, 짱아)

어머니 김정자님과 장모 박정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을 아버지 故 張 憲珪님, 장인 故 崔 承綬님 영전에 바칩니다.

2011년 7월

장백기 배상

국 문 초 록

노인의 취업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대학원

행 정 학 과

정책학 전공

장 백 기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취업활동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 ‘사회적 자본’이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특히 노인의 취업활동이 삶의 질에 이르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 즉, 매개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종류의 자원이 있는지 등 보다 폭넓은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강북지역 6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취업활동 유무 및 유형의 분포를 반영하여 500명을 조사하였다. 독립변수는 취업활동 유무 및 유형, 참여만족도이며 종속변수는 주관적 삶의 질(삶의 만족감)이다.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분석은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방법을 따랐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유무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적신뢰, 공적신뢰, 사회적 참여, 정치적 참여 등의 사회적 자본은 취업을 한 노인들이 취업을 하지 않은 노인보다 높은 차이를 보였다.

둘째, 취업 유무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살펴보면,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취업을 한 경우보다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 유형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복지형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공익형과 시장형 순이다.

넷째, 취업활동 취업만족도와 삶의 질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취업활동 취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사적신뢰와 삶의 질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사적 신뢰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여섯째, 공적신뢰와 삶의 질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공적 신뢰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사회적 참여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여덟째, 정치적 참여와 삶의 질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정치적 참여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은 노인의 취업활동 취업만족도와 주관적 삶의 질 관계에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즉, 노인의 취업활동 취업만족도는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사회적 자본으로 인하여 주관적 삶의 질인 삶의 만족감이 높아진다.

주제어 :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 취업활동 취업만족도, 사회적 자본, 매개효과, 삶의 만족도

목 차

국문초록	i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제 1 절 노인의 취업활동	7
1. 성공적인 노화	7
2. 노년기 일과 취업활동	14
제 2 절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	26
1. 삶의 질 개념	26
2.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	28
3.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 측정	30
4. 노인 취업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	30
제 3 절 사회적 자본	34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34
2. 사회적 자본의 특성	43
3.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및 측정	45
4. 노인의 취업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47
5.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48
제 3 장 연구모형 및 조사설계	50

제 1 절 연구모형	50
제 2 절 연구문제 및 가설	51
1. 연구문제	51
2. 연구가설	51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53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53
2. 측정도구 및 신뢰도 검증	57
제 4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58
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58
2. 자료의 분석방법	59
제 4 장 연구결과	61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61
제 2 절 각 변수들에 대한 분석	67
1.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67
제 3 절 가설검증 결과	69
제 4 절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의 검증	85
제 5 장 결 론	90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90
제 2 절 정책적 제언	93
【참고문헌】	96
【부 록】 설문지	107
ABSTRACT	112

【 표 목 차 】

<표 2-1>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18
<표 2-2> 노인 취업활동 사업유형	22
<표 2-3> 사업수행기관별 역할 및 기능	23
<표 2-4> 사회적 자본의 정의 및 접근방식의 비교	44
<표 2-5> 사회적 자본과 비교	44
<표 3-1> 측정변수의 문항구성	53
<표 3-2> 취업활동 참여유형	55
<표 3-3> 신뢰도 분석	58
<표 3-4>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방법	59
<표 4-1> 성별의 빈도분석 결과	61
<표 4-2> 연령의 빈도분석 결과	62
<표 4-3> 배우자 유무의 빈도분석 결과	63
<표 4-4> 교육수준의 빈도분석결과	63
<표 4-5> 월평균 소득의 빈도분석 결과	64
<표 4-6> 건강상태의 빈도분석 결과	65
<표 4-7> 자녀와의 동거여부의 빈도분석 결과	65
<표 4-8> 노인 취업에 관한 빈도분석 결과	66
<표 4-9> 일반적 사항, 삶의 질과의 관계	68
<표 4-10>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70
<표 4-11>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취업유무 차이	71
<표 4-12>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취업유형 차이	74
<표 4-13>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취업만족도 차이	77
<표 4-14> 노인의 취업유무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	79
<표 4-15> 노인의 취업유형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	80
<표 4-16> 노인의 취업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81
<표 4-17> 노인의 취업유무, 유형에 따른 삶의 질 차이	82

<표 4-18> 노인의 취업유무,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84
<표 4-19>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검증	85
<표 4-20> 노인의 취업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86



【 그림 목 차 】

[그림 2-1]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그 관계	45
[그림 3-1]	연구모형	50
[그림 4-1]	전체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87
[그림 4-2]	사회적 참여의 매개효과	88
[그림 4-3]	네트워크의 매개효과	8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60년대에 2.9%, 70년대에 3.1%이던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 7.2%, 2011년에 11.3%를 넘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3%가 되어 고령사회(aged Society)¹⁾에 본격 진입하며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향후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이다(통계청, 2010).

노인의 이러한 삶의 양상은 노인 학대, 부양 회피, 독거노인 급증, 노인 자살 등과 같은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비 문제는 긴 여가시간, 역할 상실, 수입의 감소, 사회적·심리적 고립과 소외문제(황진수 외, 2010: 31-55)와 더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 부양비의 증가 원인은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평균기대수명이 높아지고 노인인구수가 증가됨과 더불어 출산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통계청(2006) 자료에 따르면 2005년의 노인 부양비의 경우 생산 가능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과 같고, 2010년에는 6.7명, 2020년에는 4.6명,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노인부양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이 장기간 고용

1) UN은 연령구조에 따라 한 나라의 인구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 미만인 국가는 유년 인구국(Young Population), 4-7%인 국가를 성인 인구국(Mature Population), 7% 이상인 국가를 노년 인구국(Aged Population)으로 분류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국가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한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이광래, 2003: 153-164).

노인이 직업활동으로부터 은퇴하는 것은 생계수단 상실을 의미하며, 갑작스러운 수입의 감소로 인해 노인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Blasi, 1999). 은퇴는 생계수단 상실 이상의 의미이며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의 축소와 다양한 사회적 활동으로부터의 점진적인 철수를 의미한다.

경제력의 감소는 욕구의 감소를 가져오고, 왕성했던 사회적 활동들을 축소시켜 나가기 시작한다. 노인은 가족과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가족과 공동체에서의 역할 상실은 나아가서 노인에게 불안감(anxiety)과 우울증(depression)을 가져오고 자아 존중감(self-esteem)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김애련, 2001: 14). 이와 같이 노년기의 불안은 주관적인 디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킨다. 또한, 노인의 불안이 자살(Allgulander & Lavoru, 1993)이나 심장질환을 가진 노인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임주영, 2009: 2).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²⁾를 모토로 하여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는 변수들을 발견하고 강화함으로써 노인을 위한 삶의 질을 개선시킬 방안들을 모색하는 연구들을 다양하게 진행해왔다(Krause, 1997; 양민희, 2009: 2 재인용).

앞에서 언급했듯이 노인의 직업활동으로부터 은퇴는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의 축소와 다양한 사회적 활동으로부터의 점진적인 철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으며, 점차 더 관계에서 고립되고, 이것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노년기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활동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활동이

2) 성공적 노화란 기존에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에 대한 노화 개념의 변화로, 대표적인학자인 Rowe와 Kahn은 성공적 노화를 질병과 그에 따른 기능 장애를 예방하는 것, 신체 및 정신적으로 높은 기능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 인생 참여로 정의하였다(Rowe · Kahn, 1998).

론 (Activity Theory)이 있다. 이 이론은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³⁾에 관한 연구 분야에 가장 영향을 미친 이론으로, 중년기 때의 활동수준을 노년기에도 계속 유지하였을 때 노후가 행복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즉 노년기의 감소된 역할을 다른 활동으로 대체할 때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이 되면 신체적 노화나 은퇴, 사랑하는 이의 죽음, 사회적 역할로부터 퇴조 등의 상실과 역할감소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때 취업활동,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였을 때 얻게 되는 만족감으로 주관적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이 보dana은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활동으로부터의 퇴출과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의 축소 등 노후에 포기해야만 하는 기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활동을 찾아야 한다.

노인의 취업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같은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새롭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며, 또한 참여를 통하여 노인의 건강이 증진되고(Rowe · Kahn, 1998) 사회적 통합을 가져오며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고(김옥, 2006: 287),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나항진, 2004: 66). 이와 같이 노인 취업활동과 같은 ‘노인의 생산적 활동’ 참여는 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대체활동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 취업활동은 노인부양 문제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노년의 생산적 활동’에서 얻게 되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

3) 미국과 유럽에서 노년기의 활동욕구는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 (productive engagement in later life)’이라는 연구 분야로 최근 고령화로 인하여 부각되고 있는 테마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이 생산적인 일에 계속 참여하면, 사회적 역할로부터 분리된 노인보다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건강해 질 수 있다는 활동이론에 기초하여 (Adelman, 1994), 노인의 근로, 자원봉사활동, 가족수발활동이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개념은 노인이 자원의 소비자일 뿐이며, 사회에 활동적인 기여를 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사고에 반대하며, 오히려 노인의 생산적인 역할은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Freedman(2001)은 노인인구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인간자원으로 간주하였고, Bass(1995)는 비록 노인의 생산적인 활동이 경제적인 성장에 기여하지 않아도 (Schulz, 2001) 자신과 타인을 위한 기여를 함으로써 사회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Peter D. Hart Research Associate, 1999 재인용).

즉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다가올 고령사회 노인연구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내의 노인연구는 수명연장에 오랜 기간 그 초점을 맞춰왔으며, 노인 취업과 같은 ‘노년의 생산적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다양한 효과나 그 영향, 정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노인의 취업활동의 선행연구도 주로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본 고령인력의 활용제도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국한 되었다(박주월, 2009; 라진구, 2009; 배호준; 2006; 하태중, 2005).

본 연구는 노인의 취업활동과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중간 과정에 주목하였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종류의 자원이 있는지 등 보다 폭넓은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바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이다. 사회적 자본이란 ‘물질적 자본’, ‘인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발달과 성장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는 자본이지만, 개인이 타고난 내적인 능력에 달려있거나 주어진 물질적 기반에 존재하기보다 자신이 속한 환경 안에서 자신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맺는 포괄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 획득하는 자본을 말한다(이재훈·김경근, 2007: 176-177).

노인은 비경제적 활동인구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일차적으로 부양의 대상으로 간주되며, 경제활동을 하는 소수 노인들도 대부분 고령에 접어들기 전에 비해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자본과 같은 대안적 자본이 개인의 삶의 질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이기홍, 2005: 15).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취업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특히 노인의 취업활동이 삶의 질에 이르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 즉, 매개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노인 취업활동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며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논문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문헌 등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개념 및 정의를 중심으로 노인의 취업활동(유무 및 유형, 취업만족도)과 주관적인 삶의 질, 사회적 자본에 대해 논하였다.

제 3장 연구 및 조사 설계에서는 연구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실증적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제시하였으며,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와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고 표본선정·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설명하였다.

제 4장 실증분석 결과와 논의에서는 가설을 검증하였고, 결과에 대해 논의를 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제 5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의 의의 및 요약, 시사점과 제언에 대해 기술하였다.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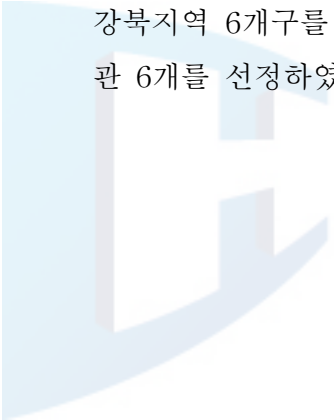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문헌 등을 통하여 취업활동 참여, 사회적 자본, 삶의 질 등의 연구단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이론적 배경으로 한 연구모형에 입각하여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적 관련성을 토대

로 하여 연구변수간의 관련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적 분석에서는 설정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 및 논의하고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PSS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t(F)분석, ANOVA 검증, 교차분석,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의 대상과 범위는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에 따른 총 500부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취업활동 중인 노인과 취업하지 않은 노인으로 구분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서울시 강북지역 6개구를 권역으로 하고, 이들 권역에 소재하는 노인종합복지관 6개를 선정하였다.



HANSUNG
UNIVERSITY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노인의 취업활동

1. 성공적인 노화

1) 노화의 개념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는 1986년 미국 노인 학회 연례회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이다(Fisher, 1995). 우리보다 앞서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한 서구에서는 노인이라는 사회적 특수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연구에서 반드시 ‘성공적 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하게 노인 개인이 건강하게 잘 늙어가기 위해 노인 자신은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 국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밝히는 것에 그 목적을 두어 왔다(양민희, 2009: 6). 과거에는 노인을 소극적이고 유약하여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이탈이론⁴⁾(disengagement theory)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노인이 경험하는 노화의 보편적인 상황은 신체기능이 약해지고, 죽음이 가까움을 지각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역할 또한 위축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또한 나이든 사람은 이전에 비해 자기 자신에게 더욱 몰두하게 되므로 다른 것에 대한 정서적인 관여가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총체적인 이유 때문에 노인은 은퇴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며 유리되어 지내는 것이 사회나 노인에게 모두 도움을 줄 것으로

4) 이탈이론(disengagement theory)에 의하면 노화에 따라 역할을 점차 축소해 나가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노인 자신과 사회 모두에게 기능적이라고 주장한다. 이탈이론은 노인을 사회에 기여능력을 상실한 존재로 평가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노인은 더 이상 사회에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지 않으며, 중요한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다(Sullivan, Thompson, Wright, Gross and Spady, 1980). 노년기와 사회적 이탈을 주장한 Cumming & Henry(1961)는 노인과 사회적 환경과의 격리는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노년기가 되면 사회적 관계를 감소시켜야 한다.

예측했다(Cumming & Henry, 1961). 그러나 후에 계속이론(continuity theory)이 등장하며 개인이 노화를 경험하며 원하는 것은 휴식이나 유희와 같은 단순한 것이 아니며, 인간은 삶의 내적·외적 구조에서 과거와 연결되어 계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Atcherly, 1993; Kelly, 1996).

내적인 구조는 지식, 자아 존중감, 개인사에 대한 감각, 자아 통합감을 말하고, 외적인 삶의 구조는 역할, 관계, 활동, 사회적 지지의 원천, 물리적인 환경을 의미한다(Atcherly, 1993). 그러므로 활동적이었던 노인은 계속 활동적으로,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싶은 노인은 은퇴 이론의 주장과 같이 유리되어 보내는 것이 각각의 노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Kelly, 1996).

이처럼 노화를 경험하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는 노인이 보다 잘 늙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선 노인의 노화 정도 혹은 노인의 노화 수준을 어떻게 판단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했다. 전통적으로 인지되어 온 성공적 노화의 복합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지표로써 수명,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인지효능, 사회적 능력, 생산성을 들 수 있고, 주관적 지표로써 개인적 통제감과 생활만족도를 들 수 있다(Bengtson & Kuypers, 1985; Palmore, 1981). 어떤 측정 기준을 가지고 노화의 질을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과연 성공적인 노화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성공적인 노화는 인생만족, 노인의 심리적 안녕, 정신 건강 등의 개념과 혼용되기도 하며 다양한 정의들이 시도되어왔다(Ryff, 1995).

대표적 학자인 Rowe와 Kahn(1998)은 ‘성공적 노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공적으로 노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생애 과업은 무엇인가’, ‘성공적으로 노화할 수 있도록 미국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의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미국 내 7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기능, 인지적 기능, 생산적 활동 등의 영역을 측정하여 이들 간의 영향력 및 관련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성공적 노화란 ‘위험도가 낮은 질병과 질병 관련 장애의 부재 상태’이며 ‘수준 높은 정신과 신체

기능'을 가지고 '삶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위의 세 과정은 또한 위계순서가 있어 우선 질병과 장애가 없어야 정신과 신체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쉽고, 정신과 신체 기능이 유지되면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여기서 이들이 생각하는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행복한 활동을 계속한다는 것으로, 경제적인 활동뿐 아니라 집안일, 가족이나 친구 돌보기, 교회나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하기 등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들도 초기에는 성공적 노화를 단순한 질병과 무능력의 회피로만 인식하였으나, 연구가 진행될수록 그 개념을 확장해 신체적·인지적 기능의 유지와 더불어 사회적, 생산적 활동의 참여를 첨가해 중다차원적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노화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쇠퇴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신체적 습관이 신체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변인들을 통해 노화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누구든지 노력을 통해 보통 노화에서 성공적 노화로 옮겨갈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노인 개인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식사, 운동, 정신적인 자극, 자아 존중감,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할 뿐 아니라, 노인이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에 계속 공헌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양민희, 2009: 7).

이외에도 성공적인 노화는 긍정적인(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성취하고, 부정적인(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Baltes, 1993). 혹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사회가 존중하는 유행 세력에 맞춰 재형성하고, 문화적으로 인식되는 정신, 신체, 지역사회의 조건으로서 계속 새롭게 출현하는 것에 대해 한 사회의 노인이 소외되거나 유리되는 것이 아니라 잘 적응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를 이끈다는 것이다(Featherman, Smith & Peterson, 1991; Elliott, 1997).

노인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성공적인 적응 능력은 그에 맞는 원활한 대처방식을 결정하게 되고 이것이 노인의 삶의 안녕이나 인생만족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Baltes & Baltes, 1990; Featherman, 1992;

Featherman, Smith & Peterson, 1991).

이러한 적응에 관한 이론적 시도로서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 모델(SOC)이 제시되었다(Baltes & Baltes, 1990). 사람은 나이가 들에 따라 자신에게 중요한 활동이나 목표를 선택해서 그와 관련된 기술을 적정(최적)화하고, 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부족함을 보상하고자 한다. 즉, 상실이 획득보다 많은 노년기에는 활동이나 목표를 선택(Selection)할 때 자신이 높은 수행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몇 개의 특정 영역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다른 영역은 무시하게 된다.

적정화(Optimization) 전략은 잠재능력을 활성화하고 자신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영역을 최대화하는 행동이고, 보상(Compensation) 전략은 생물학적·사회적 인지기능 상실 등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처할 효율성이 떨어질 때 특정 학습행동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발달의 상실분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다. 노화에 있어 상실은 필연적인 것이며 이를 통해 절망하기보다는 상실을 받아들이고 흡수해야 하는데 이때 형성되는 것이 지혜와 미덕이다(Baltes & Baltes, 1990).

이상과 같이 성공적인 노화를 정의하고자 했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성은, 노화는 단순히 측정할 수 없고, 결과가 아닌 계속적인 발달의 과정이며, 성공적인 노화에 이르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노화는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활동,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의 원활한 사회적 접촉의 과정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2) 국내 연구

성공적 노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 비교적 활발하게 시작되었고, 연구 초기에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정의 및 인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홍현방, 2002; 박경란·이영숙, 2001; 성혜영·유정현, 2002; 홍현방·최혜경, 2003; 김미혜 외, 2004 등).

특히 성공적 노화의 대표적 모델로 본 연구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Rowe와 Kahn의 모델을 각국에 적용하여, 제시된 변인들 간의 관련성

을 검증하는 연구가 있었는데(Cohen: 1999) 국내에서도 Rowe와 Kahn의 모델에 한국 데이터를 투입해 검증하는 연구가 있었다(성혜영·조희선, 2005: 105-106). 서울시에 거주하는 60대 노인 396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Rowe와 Kahn이 제시한 것과 같이 질병과 질병 관련 장애의 위험이 낮은 상태에 있고,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며 다양한 생산적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치관 정도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주장도 있다(백지은, 2008: 244-245). 한국 노인의 전통적인 가치관 정도에 따라 부계혈연 지향형, 전통 이탈형, 전통 고수형, 유교 지향형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유형에 따라 성공적 노화를 인지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소나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내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성공적 노화의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고대·원영신, 2005; 김미혜·신경림, 2005; 백지은·최혜경, 2005), 국내외 연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맞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적극적 사회참여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생산적 활동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노인의 좋은 심리상태가 기반이 되어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활발한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인해 긍정적인 심리상태로 변화되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의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고, 사회활동이 반드시 모든 노인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회활동이 노화에 접어든 노인의 삶이 성공적으로 변화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양민희, 2009: 13).

그러나 우리는 노인연구에 있어 수명연장에 오랜 기간 연구 초점을 맞춰왔고, 성공적 노화를 달성하기 위한 선행 단계라 할 수 있는 신체적 기능 유지와 질병 예방에 연구를 집중해 왔다. 그리하여 ‘삶에 능동적 참여’와 관련하여 노인이 얻게 되는 다양한 효과나 그 영향 정도에 대한 연구는 현재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의 세 위계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노인의 적극적인 삶의 참여’를 대표하는 ‘노인의 사회활동’으로써 취업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본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

3)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인

노년기가 연장되고 긍정적인 삶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노인의 요구가 커져왔으며 노년기, 더 나아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야 할 목표와 같은 것으로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노인이 바라는 행복한 노년기에 대해 “성공적인 노화”, 또는 “건강한 노화”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성공적인 노화”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개념을 정의하는 형식은 다양하며, 하나의 합의된 정의나 측정도구를 찾아보기 어렵고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연구 초기에는 성공적 노화가 건강과 수명 등 주로 생물학적 측면에서 정의되었다. 이후 최근의 발달심리학자들은 인지적 기능과 정서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학자들은 역할과 사회적 통합에 중점을 두어 성공적 노화를 정의하고 있다.

성공적 노화의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를 보면 성공적 노화는 대부분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측면이 별개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그 구성 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측면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 중의 하나가 삶을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공적 노화의 지표를 신체적 건강이라고 보았다. 적극적인 사회참여모델을 제시한 Rowe와 Kahn(1998)도 질병을 피해가는 것을 중요

한 성공적인 노화요인의 하나라고 보았다. Ryff(1995)는 신체건강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국내 연구에서도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건강은 가장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은숙, 1998: 647).

이처럼 건강은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을 유지하는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맥아더 현장 연구소에서는 운동과 정서적인 지지의 상호적 관계망이 성공적 노화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eeman et al., 1995).

Fries(1980)는 오해 살고, 죽기 직전까지 활기차게 사는 것이 성공적 노화의 바람직한 예라고 하였다. 죽기 직전 해의 삶의 질이 수명연장의 실패와 성공의 척도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 심리·정서적 측면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심리·정서적 측면의 요인으로 자아 존중감, 독립성, 수요, 긍정적 사고, 적응성, 적극적 사고, 진취적 사고, 종교, 임종이 포함된다(조해경, 2002: 221-222). 자아 존중감은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한다. 이에 비해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학문적 수행이 우수하고, 심리적으로 더 잘 적응하고, 실패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적절하게 분노를 표현하며,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오직 원인에 귀인하며,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이후에 수행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다(이훈구, 1997).

(3) 사회적 측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사회적 측면의 구성요소로는 주로 사회적 지지 및 관계망, 경제적 상태 등이 언급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궁할 때 도와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타인들이 있다는 일종의 신념에서 형성되며(Wethington and Kessler, 1996), 사회적 관계망은 심리

적 안녕을 복돋우고 삶의 스트레스에 적응하도록 촉진하는 사회적 지지의 근원으로 간주된다(Rook, 1997; Larson, 1978).

한편 경제적 요인은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노인의 수입은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게 됨으로써 노인의 자율성이 향상되므로 노인이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의 정도가 높아진다(Mannell and Dupuis, 1996; Campbell, 1981).

이처럼 노년기의 경제활동은 안정된 소득의 확보, 사회발전에의 기여감과 자기 유용감의 확인, 건강유지 효과, 사회적 소외와 고독감의 억제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권중돈·조주연, 2000: 71-73).

2. 노년기 일과 취업활동

노년기가 되면 노인을 기존의 사회참여 활동에서 자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이탈이론의 주장은 노인을 의존적이고 피부양적 존재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출산율이 낮아 경제활동인구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현대사회에서 노인이 하는 취업활동은 국가의 중요한 인적자본이며 민간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말아야 할 당위성이 있다.

이와 같이 노년기에도 이전의 발달단계와 다름없는 사회·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취업활동을 포함한 사회활동 참여 수준이 유지될 때 심리적 복지를 이룬다(Lemon, Bengston and Peterson, 1972; Longino and Kart, 1982)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퇴직은 노후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저하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Hendricks and Hendricks, 1981). 이처럼 노인의 특징과 관련이론을 종합해 볼 때, 노인취업을 연구하는 데는 활동이론이 좋은 근거이론이 된다.

1) 활동 이론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노년기 이전과 같이 활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노인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Havighurst, 1972). 즉, 이탈이론과 상반되게 활동이론은 노인이 기존에 활발하게 해왔던 활동과 역할을 자신의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 강요에 의해 축소당하거나 상실할 때 노인은 부정적 문제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활동이론에서 ‘활동’은 단순히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규칙적으로 정형화된 행동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선정, 2005: 91-93).

일찍이 노동과 생산성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서구에서는 노인이 하는 취업활동을 포함한 사회활동과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를 활동이론에 근거하여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활동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검증작업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이 이론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윤순덕, 2004: 72-73). 활동이론에 의하면 노년기의 사회활동 참여는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은 중·장년기처럼 다양한 역할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Blau, 1973; Longino and Kart, 1982). 즉, 노년기의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는 긍정적 자아개념을 유지하고 성공적으로 노화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활동이론은 노년기 활동 참여에 대한 논의 뿐 아니라 개인의 역할 지지의 근거가 되는 대안적 상호작용을 중시하였다. 특히, Lemon (1972)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관점에서 활동이론을 재정립하였다. 이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의 지위 및 역할이 부여하는 사회적 활동범위 내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그리고 개인은 타인에 대한 반응을 해석함으로써 자아개념과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며 유지한다(Rowe and Kahn, 1998).

활동이론은 노인이 취업활동 등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노년기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활동이론을 토대로 퇴직, 배우자 상실 등에 의한 역할상실을 대체할 수 있는 노인 취업활동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노년기의 일의 개념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내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남기민·최화강, 2009: 350).

일을 통하여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으며, 심리적 목적까지도 달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의 만족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일 그 자체를 필요로 한다.

일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데, 광의로서의 일(work)의 개념은 모든 종류의 생산적인 활동(productive activity)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 협의의 일의 개념은 보다 육체적인 유급의 산업노동인 노동(labour)으로 국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과 노동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유급의 노동만을 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이란 자신과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제반 생산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일이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도움이나 무급의 자원봉사형태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를 하는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권중돈, 2004).

인간이 노동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인간은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며, 은퇴한 노인의 경제활동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원을 확보해 주고, 나아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시키며 노인의 역할 수행에 대한 자부심과 유용감 및 자아 정체감 등을 갖게 해준다(박석돈, 1997: 3-49).

그러나 경제활동이 축소되면서 발생하는 수입의 부족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들을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서 각종 사회활동의 기회들을 박탈한다(김애련, 2001: 95-96) 또한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면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타인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삶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다(Klemmack & Roff, 1984).

노년기에 일을 갖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일은 공식적인 노동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화폐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경제활동이라기보다 사회활동으로 시장기제 밖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의 생산적 활동은 비공식적인 도움이나 무급의 자원봉사 형태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까지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생산적 활동(productive activity)으로 개념화한다. 생산적 활동을 경제학적 측면의 좁은 의미로 규정할 경우는 공식적인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노인은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고 부양 부담만을 가중하는 존재가 되어 버리지만 자원봉사, 사회 참여, 비공식적인 돌봄 및 지원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 활동을 생산적인 것으로 규정하면 노인은 여전히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생산적인 존재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Bass; Caro & Chen, 1993; 장유미, 2011: 7 재인용).

3) 노년기 취업활동의 필요성

(1) 노인 부양의 문제

통계청(2006) <표 2-1>에 따르면 2005년의 노년부양비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과 같고, 2010년에는 6.7명, 2020년에는 4.6명,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인세대의 부양은 가족, 사회,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가족주의가 강하며 특히 효의 관념이 강하게 지배해 왔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가족 내에서 노인을 부양해 왔다. 그러나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고, 개인주의적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보편적 노인부양 형태는 차츰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노인의 가정적·사회적 역할 또한

저하되면서 노인부양의 책임은 연금제도의 확충이라는 방법으로 강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보편적 연금제도 실시가 미흡한 실정이며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원은 자녀의 수입에서 이전받는 것이 통례이다(김영란, 2008: 75-76).

<표 2-1>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노년부양비(% ⁵⁾)	7.4	8.3	10.1	12.6	14.9	21.8	37.3
노령화 지수	20.0	25.2	34.3	47.4	66.8	124.2	214.8
노인1인당 생산가능인구(명)	13.5	12.0	9.9	7.9	6.7	4.6	2.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이제까지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생활은 대부분 가족에 의해 보호되어 왔으나 자녀의 부양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노인이 경제적 자립생활을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2) 직업으로부터 은퇴

직업시장에서 은퇴하는 것은 노인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실직은 노인의 주 소득원을 상실시키고 사회에서의 소속감을 박탈해 스스로를 이탈자로 느끼게 하고 이것은 심리적 불안감, 우울감, 고독감을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자아 존중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Koenig, 1995).

최근 직업시장에서의 은퇴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데, 인간의 발달주

5) 주 :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15-64세 인구) × 100

노인 1인당 생산가능 인구 = (15-64세 인구/ 65세 이상 인구)

기를 직업발달 과업으로 설명할 때 45세부터 65세는 개인이 선택한 직업을 유지하는 시기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시기는 오히려 71세 이후로 정정되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정년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 55세에서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가 은퇴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는 것이 가능하고, 노인의 직업활동 참여욕구와 다른 연령층의 직업활동 욕구가 크게 차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의 평균적인 건강 수준은 향상되고 있어 계속 일할 수 있음에도 실직하게 된 노인은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직 노인 집단 중 취업한 노인의 경우 이전에 비하여 여가생활을 제외한 전체적인 삶의 질 관련 요인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속해서 미취업 상태인 노인의 경우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고 생활의 활력이 저하되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현 외, 2008: 152). 이처럼 노인의 직업활동 참여는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대다수이다(Havighurst, 1972; 이해자 외, 2003: 142-143).

노인은 직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직업을 통해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역할 상실에서 오는 허전함, 우울감 등을 치유할 수 있다. 직업활동의 심리적 기능은 여성이나 저소득층 노동자보다 중상류층의 남성노동자에게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하며(김애순, 2000: 171-173), 일부 연구에서는 직업활동에서 얻는 유익함이나 만족감이 직업활동 외의 사회활동에서 얻는 만족감보다 크다고 한다).

(3) 개인적·사회적 측면

개인적 측면에서 생각해볼 때 취업은 노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 실제로 노인이 취업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자하는 요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ooyman & Kiyak, 1999).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인에

제도 경제적인 안정은 필수적이다.

노년기에 취업활동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노인의 취업은 그들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할 일 없이 지내야 하는 시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노후에 느끼는 소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이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노년기 여가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노인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영숙, 2007: 286-289).

퇴직 이후에도 일정한 사회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노인에게 적절한 심리적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100세 이상의 장수자 연구에서 사회활동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장수요인이 되는 것(최성재, 2002: 198-199)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노년기에 사회활동이 필요한 이유를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인의 취업활동이 사회의 노인부양비를 절감시키기 때문이다. 서구사회의 복지비용이 급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연금급여비와 의료비가 증대되기 때문임(민재성, 2001: 9-18)을 보아도, 노후에 이루어지는 생산적인 활동은 연금재정을 안정화하고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해주며 노인의료비의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인의 취업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 노인 가운데는 병약한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많고, 적어도 70대 중반까지는 직업능력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정신능력과 직업활동 수행능력이 크게 떨어지며 의존적인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다(박경란·이영숙, 2001: 229). 노후에도 계속적으로 생산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놓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취업은 사회보장비용을 절감하고 노인의 여가활용을 개선하며 유희노인 인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노인에 대

한 편견을 해소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점 등에서 고령화 사회에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한 사람의 내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다(남기민·최화강, 2009: 350). 일을 통하여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으며, 심리적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에 대한 만족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일 그 자체를 필요로 한다.

4)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

노인을 부양의 대상으로 생각하던 전통적인 인식으로부터 생산적 활동의 주체로 인정하는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노인복지분야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적 고령화가 서구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UN은 노인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기여여와 공헌을 인정하여 노인의 사회 참여 및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 행동계획’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윤순덕, 2004: 57-58).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productive engagement in later life)’은 생산적인 일을 계속하는 노인은 사회적 역할로부터 분리된 노인보다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활동이론에 기초하여(Adelman, 1994), 노인의 취업, 자원봉사활동, 가족수발활동이 노년기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연구 분야이다(최은희, 2007: 7-9).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productive engagement in later life)’은 금전적 보상과 무관하게 사회에 기여되는 모든 가치 있는 활동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여가활동, 취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단체의 참여, 친족이나 타인에 대한 도구적·정서적 도움 제공 등의 사회적 활동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년기의 일에 대한 연구는 유급의 노동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등을 통하여 사회적 기여를 하는 생산적 활동까지를 일의 범주로 포함시킨 연구가 많다(조윤주, 2007; 문정란, 2010; 최은희, 2007; 이현기, 2009; 남기민·최화강, 2009).

종래의 수동적, 비생산적, 비효율적, 자포자기적 상황에서 이제는 능동적, 생산적, 효율적, 자기 선택적인 변화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박상철, 2003: 3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노년기의 취업활동을 유급 노동뿐만 아니라 생산적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5) 노인 취업활동의 사업유형

노인 취업활동의 사업유형은 일반적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익형, 교육·복지형, 시장형의 3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표2-2> 노인 취업활동 사업유형

구 분	일자리 예시
공 익 형	거리환경지킴이, 자연환경지킴이, 지역행정지킴이, 불법주차단속·계도 등
교육·복지형	공원관리원, 청사관리원, 주유원, 식당보조원, 매표원, 급식지도원, 주례, 가사도우미, 청소원, 주차관리원, 학교 내 학습장 관리, 문화재/ 숲 해설가, 컴퓨터, 노래 강사 등
시 장 형	간병인 사업단, 지하철택배사업단, 세탁방, 도시락사업, 재활용품점, 번역·통역사업, 실버용품점 운영, 전통 공예, 문화상품 제작판매 등

‘공익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영역 중 노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창출하고 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로서 거리·자연환경·교통

지킴이, 방법순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교육·복지형'은 전문지식, 경험을 가진 특정분야의 사람이 복지시설과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일자리로 숲 생태 및 문화재 해설사로 대표되는 '교육형'과 독거노인, 중증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복지형'으로 구분된다.

'시장형'은 수요처 요구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연속적인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일인 공원관리인, 청사관리인, 주유원, 식당보조원, 판매원, 운정원, 급식지도원, 주례, 가사도우미, 일인 간병인, 지하철택배, 세탁방, 도시락사업, 재활용품점, 번역·통역, 유기 농업사 등이다.

한편 노인취업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별 역할 및 기능은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3> 사업수행기관별 역할 및 기능

기 관	역할 및 기능
지방자치단체	공익형 전담(필요시 위탁수행)
시니어클럽(CSC) (구·노인인력지원기관)	자립 지원형 전담 (교육·복지형 부분적 수행)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기관	교육·복지형 전담(시장형 일부 수행)
대한노인회	공익형 위탁수행 및 단순일자리 취업알선
재가노인복지시설	노老-노老 케어 등 복지형 일자리 수행

6) 노인 취업활동의 참여 동기

최근 한국의 노동시장 동향은 노년인구층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에 발생한 조기퇴직 경향은 준고령자 수를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해 경험 많고 업무숙련도가 높으며 건강이 양호하여 높은 취업욕구를 가진 50-60대 초반의 준고령자 노인계층을 양산하

였다(김승권외, 2003; 최은희, 2007: 9 재인용). 또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고령자는 75세 이상의 노인집단보다 건강수준이 양호한 편인데, 현재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고려하였을 때, 미래 노인인구집단의 건강상태는 현재보다 더 양호할 것이다.

노후에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성공적인가에 대해서 두 개의 큰 이론적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활동 범위가 줄어드는 노인이 여전히 높은 사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이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 노인의 활동성이 높게 유지될수록 성공적 노화가 이루어진다는 결과가 공존하고 있는데(홍숙자, 1999; 이영숙, 2007: 289 재인용)이는 모든 노인이 동일한 유형의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은퇴이후에 편안한 노후생활을 원하는 노인이 있는 반면, 심리적 혹은 경제적 이유로 재취업을 원하는 노인도 있다. 이와 같은 다양성은 취업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노인의 취업욕구를 보면 취업을 원하는 노인은 75.6%, 취업을 원하지 않는 노인은 24.4%로 취업을 원하는 노인이 월등히 많다(정경희외, 2009). 재취업을 원하는 노인의 심리적 원인이란, 직업이 가지는 의미가 일차적으로 생계유지 수단이나, 남성에게는 자아 정체감 형성의 주요한 부분이며 자존심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인정, 가치감 그리고 생성감의 원천이라는 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직업의 심리적 기능은 여성 및 저소득층보다 중상류층 남성들에게 강하게 작용한다(Barnett, Marshall & Singer, 1992; 최은희, 2007: 9 재인용). 이들은 자신이 사회에서 유용한 일을 하며 가족을 위한 훌륭한 공급자라는 데서 가치감과 생성감을 느끼며 살아왔다. 물론 은퇴시기가 되면 성인기동안 일을 통해 충족시켰던 심리적 욕구를 다른 부분에서 충족해야 하는 고비를 겪게 된다.

두 번째로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필요성이다.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정경희외, 2009)에 의하면, 취업노인 941명을 대상으로 취업의 이유에 대해 묻은 설문에 69.4%가 ‘돈이 필요해서’, 15.4%가 건강유지를 위해서, 9.9%가 ‘시간 보내기’로 응답하여 노인의 취업 이유는 경제적인 필요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07) 발표에 의하면, 노인의 취업 이유가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가 14.3%, 건강유지 또는 향상이 10.8%, 여가 활용이 7.2%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노년기에는 경제적 필요성, 건강유지, 사회활동 참여, 여가 활용 등의 이유로 높은 재취업욕구를 가지며, 그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현재 취업중인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취업지속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정경희 외, 2009), 전체 취업노인의 90.2% 정도가 앞으로도 계속 취업하고자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일을 그만 두고자 하는 노인은 9.8% 정도에 불과해 취업 지속의사를 강하게 비치고 있다.

취업에 대한 높은 욕구는 비취업노인이 취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한 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비취업노인은 취업하지 않은 이유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일 할 필요가 없어서’ 등을 ‘일자리가 없어서’보다 적게 지적하여(정경희, 2009),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취업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한 노인에게 취업지속 이유를 물은 결과, 돈이 필요해서 계속 취업한다는 노인이 66.1%로 단연 높았고,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위해서 혹은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 지속하는 노인은 1% 미만으로 극히 적어(정경희, 2009) 노인이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이유임을 알 수 있었다. 퇴직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수입원이 단절되거나 노령연금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 후의 노인의 경제 상태는 더욱 악화된다, 이런 상황은 노인인구를 빈곤상태에 빠뜨리고 또한 자녀에게 생활을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노인은 물질적인 어려움과 함께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자신감 회복이나 사회적 지위획득 등 비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을 원하는 노인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취업을 원하는 경우보다 취업욕구는 더 강하게 나타난 사실(박주현, 2001: 46-48)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취업은 노년기에 느끼는 고독감이나 사회적 역할 상실로 오는 좌절감

을 극복할 기회가 되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공헌할 수 있다.

제 2 절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

1. 삶의 질 개념

삶의 질 개념에 대하여 어떤 것이 질 높은 삶이나 하는 문제에 대해 연구자마다 접근이 다르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1950년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정치적 슬로건으로 등장하였고 1970년대 사회지표개발 운동과 함께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대 문민정부가 삶의 질의 세계화를 국정목표로 공식화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처음에는 삶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이 동일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물질적 풍요가 곧 질적 삶의 척도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개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 성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맥락을 같이 하여 국제 사회에서도 국가 간 발전정도를 일인당 GNP와 같은 경제적 지표에 의해서 평가하였고, 한 국가 내에서도 소득수준이 개인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척도로써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과학자들은 경제성장의 수준과 그로 인해 성취된 삶의 조건(Life condition)을 의미했던 GDP(GNP)의 개념이 인간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데 적절한 개념이 아니라는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 모색의 노력들이 존재한다. 즉, GDP의 대안으로서 제시되었던 삶의 질의 개념에는 경제적 풍요(material abundance)와 같은 물질적 측면 뿐 아니라, 질적 측면 - 대체로 건강, 보건, 의료, 개인서비스, 교육, 환경, 안전 등 -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주도한 사람은 Campbell(1976)인데, 그는 삶의 질에서 주관적·정신적 복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사람이다. ‘질 높은

삶'이 '행복한 삶'으로 정의될 때, 개인의 행복감(happiness or subjective well-being)과 물질적 풍요 간에는 높은 관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즉, 경제적 부나 생활 조건이 행복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한 경계선을 지나면 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Suh & Diener, 1995; 김애련, 2001: 10 재인용). 경제적인 부나 생활 조건이 행복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한 경계선을 지나면 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은 점차로 '삶의 질' 개념을 '행복감', '심리적 복지감' 등으로 정의하고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나 심리적 복지감(subjective or psychological well-being)을 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삶의 만족도란 자신의 일상적인 활동과 일에 대해 책임감과 의미감을 느끼고 성취감과 자아 존중감을 느끼는 상태(Neugarten, Havighurst, & Tobin, 1961; 김애련, 2000: 24 재인용)를 말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삶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간의 일치에서 오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개인의 심리적·환경적 요인은 물론 생활사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감정 상태'라 볼 수 있다(최혜경, 1985: 45). 심리적 복지감은 다양한 물리적 요소의 최종적인 결과이거나 혹은 포괄적인 대리변인(proxy variable)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과도하게 "삶의 만족도 지표" 하나에만 초점을 맞출 때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즉, 경제적인 부 하나만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삶의 만족도" 하나만으로 삶의 질 전체 개념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함께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다(김애련, 2000: 11). 비로소 학자들은 삶의 질의 다차원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이다. Rice & Miller(1990)는 삶의 질 개념이 일상생활의 작용, 사회적 역할의 수행, 생산성, 지적 능력, 정서적 안정,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파악하였

다. 삶의 질이 개인적 자율성, 육체적·정신적 안녕, 삶의 만족도, 사회·경제적 상태, 문화적 요소, 사회적 관계, 활동 능력, 환경 등의 요소를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보았다.

단일차원적(unidimensional) 접근이 삶의 질의 개념을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접근(Parmenter, 1994)은 삶의 질을 여러 가지 세부적 요소로 나누어 그 중 한 측면을 부각하여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다차원적 접근인 영역별 세분화에 의한 삶의 질 평가는 인간의 삶이 사회의 생활조건을 종합적으로 대변해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단일차원적 관점의 접근은 삶의 질을 주관적이며,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관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단일차원적 접근방법 역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삶의 질을 만족도나 행복감, 자기평가의 개인성 등 주관성에 의존하여 측정하였고 질을 만족의 차원에서 논의하였다는 점이다.

2.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

최근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웰빙(well-being)은 우리사회 전반에서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점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과정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가지는 삶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한 기초 위에서 생활세계의 조건을 개선하여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한형수, 2008: 348).

삶의 질 연구에서 직면하는 가장 일차적인 문제는 삶의 질의 개념화와 측정방법이다. 삶의 질에 대한 접근방법은 객관적인 생활 조건을 중시하는 차원과 삶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차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삶의 질은 생활세계의 객관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이 체험하는 만족감, 행복감, 풍요로움 등으로 가늠되는 다차원적 구성물

이다(Felce and Perry, 1996).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또한 노년의 생활세계의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김익기 외, 1997).

우선 객관적인 삶의 질은 삶의 수준이 노인의 건강, 경제적 생활수준, 주거환경, 가족관계 등과 같은 외적 조건에 의하여 정의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건강은 많은 연구가 지적하듯이 노년기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영향 변인이다(김익기 외, 1999). 단, 여기서 노인의 건강이란 단순히 생명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얼마나 통제력을 가지는가에 초점이 있다. 둘째, 노인의 주거환경은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와 크기, 독립적인 거주공간의 유무 등이 포함된다. 셋째, 경제적 생활수준인 노인 개인 및 가족의 재산과 소득, 그리고 용돈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수이다(김익기 외, 1997). 마지막으로 노인의 가족관계를 의미하는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의 형태와 부양방식도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서병숙·오경숙, 1990: 125-126).

반면에 노년기의 주관적인 삶의 지표는 사람의 행복감이 반드시 객관적인 부나 생활조건의 정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중시하는 입장이다(Diener, 1984; 김용택, 2003: 317-319 재인용).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은 1970년대까지 객관적 지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는 단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사회지표를 평가하는 것일 뿐,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안녕을 평가하지는 못한다고 평가되었다. 따라서 행복의 직접적인 원천은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의 개념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개념과 측정방법이 연구자마다 상이한 것은 인간 삶의 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기 때문이며 체계적측정도구가 아직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삶의 질은 각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개인의 가치관, 사회문화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세대에 따라 변화되어 가는 개념으로, 매일 매일의 삶의 구

성요소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3.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 측정

삶의 전반에 대한 만족감 혹은 행복감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시도한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신도철(1981), 하재구(1986), 조세환·오휘영(1993), 조명한·차경호의 연구가 있다. 신도철은 삶의 관심부문을 10개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조세환·오휘영은 네 가지 영역에서 17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주민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하였다. 조명한·차경호는 더 포괄적으로 삶의 질을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주관적 척도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척도를 보면 Dienet 등(1985)이 개발한 5문항으로 구성된 생활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와 Andrews와 Withey(1976)가 개발한 기쁨-절망감(delight-terrible: D-T)척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21개의 영역을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한 영역별 만족도 척도, (정적, 부정적)저서 빈도척도, 정서균형점수, 정서강도척도, 이상적인 안녕감의 수준을 고려한 개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의 정서적 경험을 고려한 개인의 정서적 경험의 수준, 감정의 변산성, 주관적 안녕감의 중요도,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친숙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정규, 2009: 12).

본 논문에서는 만족감을 측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척도로 평가를 받아온 생활 만족척도(SWLS)를 사용한다.

4. 노인 취업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취업은 노인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하여 자아정체감, 사회소속감, 만족감 및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노동자들이 노동과 가정의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 Hochschild(1997)가 시행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노동자가 가정생활보다

는 노동을 통해서 보다 많은 통제감과 성취감을 느꼈다고 조사되었다 (허준수, 2006: 297). 직업으로부터의 분리는 일차적으로 생계유지 수단으로서 자아정체감의 주요한 부분이며 자존감의 근간이며, 또한 사회적 지위, 인정, 가치감 및 생성감 등의 사회적 유대관계의 상실에서 오는 소외감과 외로운 등을 초래한다. 특히 강제 퇴직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의 충격이 큰 이유는 취업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직업의 심리적 기능(Psychological Function)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직업의 심리적 기능은 여성이나 저소득계층의 노동자들 보다는 중·상류층의 남성노동자들에게 더욱 크게 작용한다. 어떤 노동자들은 은퇴와 정서적인 죽음을 동일시하며 가능한 은퇴를 미루거나 재취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김애순, 2000: 171-173). 타인에 의한 노동시장에서의 퇴직은 심리적으로 배신감, 분노 및 좌절감 등과 같은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며, 조기퇴직은 역할상실감, 무력감 및 수입상실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경험할 경향이 매우 높다. 그리고 직업 상실은 개인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이고 이로 인해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모두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고령자의 실직은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직한 노동자는 슬픔, 양심의 가책, 자존감의 저하, 정체감의 상실 등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김영란, 2007: 78). 그리고 실직한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비하여 높은 우울감, 분노감 및 질병률 등이 나타나났다(김영란: 78 재인용). 같은 상황에서 고령자들은 젊은 계층의 근로자에 비해서 실직으로 인한 고통을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허준수, 2006: 297). 대부분의 고령자의 경우 건강하고 더 일할 능력이 있고, 또 일에 대한 의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이나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에서 떠나게 되면, 과거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던 익숙한 업무를 놓게 되며,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서도 물러서게 되어 소외감을 경험하고 낮은 자아 존중감이 나타나는 경향이 높다. 특히 대다수의 고령자가 처음에는 막연하게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지만, 나중에는 취업욕구가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Bass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은 노인의 정신건강, 생활

만족도, 결혼만족도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육체적 건강을 통제한 후에 취업노인과 미취업노인의 심리적 증상에 대하여 비교해 본 결과 취업노인이 부정적인 심리적 증상이 적게 나타났다(허준수, 2006: 298).

노인에게 직업과 노동은 단순히 경제적 부분의 결핍만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노동과 취업을 노년기 삶에 있어 자신감을 갖게 하고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자아 통합감의 증진을 통하여 자기 실현의 기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신적, 정서적 행복감과 유용감은 개인의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키며 노인의 사회통합을 촉진시켜 주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비생산적인 노년기를 보다 생산적 시기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노인은 재취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산적인 노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김영란, 2007: 78-79).

Havighurst(1968)에 의하면 생물학적 측면과 건강의 불가피한 변화를 제외하고는 노인은 근본적으로 중년기와 다름없는 심리·사회적 욕구를 지니고 있어 사회적 활동의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심리적 만족감과 삶의 만족감은 높다고 한다. 즉, 활동은 개인의 자아개념을 재확인하는데 필요한 역할지지를 제공하며, 역할지지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은 삶의 만족도를 높게 유지하게 한다. 또한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친밀한 활동을 할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이 유지되므로 노년기에도 많은 사회적 관계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퇴직으로 인하여 상실된 역할활동을 대체할 만한 다른 활동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노년기의 사회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노인이 노후에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존생활을 유지해야 하며, 노후에 포기해야만 하는 기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활동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란, 2008: 79).

노년기의 활동이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면 노인의 취업활동, 자원봉사활동 및 여가활동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새로운 대체활동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애순(2000: 176-179)은 노년기의 취업활동이란 소득과 관계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흥미를 느끼고 즐겁게 할 수 있고 적절한 활동수준을 유지해 줌으로써 삶에 생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을 때 그 일은 개인의 신체,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박석돈(1997; 김영란, 2008: 79 재인용)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약화되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겪는 직업적 역할 상실이 사회적 역할상실로 이어져 낙담하거나, 무기력증에 걸리게 되므로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취업을 시도하게 된다고 하였다. 심리적 요인에 의한 취업경향에 대한 실증 연구들을 보면, 박석돈(1997)은 취업욕구를 가진 노인 중 42.2%가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 취업을 선택한다고 하였으며, 콘(Cohn)은 직업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나이가 들수록 둘 사이에 상관성이 없어지며 심리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일의 중요성이 덜해지며 오히려 삶의 다른 장면들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노인은 일에서 얻는 사회적 지위나 인정, 성공, 보수와 같은 외적인 보상의 중요성은 점점 약화된다.

구체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기여나, 역할소외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만족감, 명예, 다른 사람과의 교제 등을 취업을 통해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취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역할소외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 만족감과 명예를 얻고 다른 사람과의 원활한 교제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김정아·김금이(1997)는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가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배우자 유무, 현 직업유무, 월수입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고 한다. 박기남(2005: 28-30)은 취업 여부에 따른 노인의 생활 만족도는 지역 간,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서울 지역의 경우 취업해 있는 노인 남녀 모두 삶의 만족도가 비취업노인에 비해 약간 더 높았으며, 춘천지역에서는 여성노인의 경우 생계형 취업의 비율이 높아서인지 취업을 했을 때 만족도가 더 낮아졌다고 하였다.

노정옥(2004: 59)은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나

여가 활용으로 인한 취업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소득이 적더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작업환경이 쾌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노인취업기관은 가능한 한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해야 하며 가족의 입장에서는 취업노인을 격려하고 지지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인취업은 노인에게 소득보장, 사회참여, 정신적·신체적 건강유지, 여가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므로 노인취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영란, 2008: 79-80).

결국 취업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취업여부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노인취업이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는 분야임을 시사하고 있다.

제 3 절 사회적 자본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은 한 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공평성의 문제, 빈곤의 문제 등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인주의적 지향을 어떻게 공동체적인 관심으로 바꿀 수 있는가’ 라는 논의에서, 경제적으로 기회주의적 행동의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서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통적 공동체의 역할이 점차 감소하는 현대적 상황에서 개인들에게 소속감이나 정체성 그리고 결속력을 제공해주는 효율적인 장치로 인식되기도 하기 때문이다(유석춘·장미혜, 2002: 108-111).

사회적 자본에 관한 논의는 민주주의, 경제성장, 교육, 복지, 지역 활성화 등의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최초의 사회적 자본이란 용어는 하니판(Lyda Hanifan, 1916)이 사용했다. 이어 제이콥스(Jane Jacobs, 1961: 138)는 오래된 도시 구성원들 간의 내적이고 조밀한 네트워크가 사회의 공적 안전을 보장할 수도 있다는 점에 착안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등에서 연구는 더욱 심화되었는데, 사회적인 연대와 번영의 공유,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을 중요시한 제임스 콜먼(James Coleman, 1990)과 피에르 부르뒤에(Pierre Bourdieu, 1986: 249)의 사회적 자본 논의는 이론적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World Bank, 2003; Fukuyama, 2001: 40-42; 송경재, 2005: 5 재인용). 이후 사회적 자본은 민주주의를 풍부하게 하고 참여와 의사결정, 사회의 협력적인 모델 제시, 시민의식의 함양을 통한 발전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학문적인 진전은 사회적 자본이 정치제도의 반응성과 효과성에 기여하고 경제발전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개인수준에서 삶의 질, 행복, 만족과 효능감(efficacy)에 기여하는 기대효과의 측면에까지 확대되었다(World Bank, 2002; 2004; OECD, 2001; Putnam, 2000; 송경재, 2005: 5 재인용).

사회적 자본을 체계적으로 최초로 분석한 최근의 논의는 Pierre Bourdieu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그 당시 불어로 출판되었던 이유로 영어권 국가에서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Coleman과 Putnam에 의해서이다. 이 세 사람의 논의는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정치적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 기존의 협소한 경제적 모델로는 적절히 설명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롭고도 적절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Pantoja, 2000; 김종미, 2004: 재인용).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하였고, Baker(1990)는 “특정 사회구조에서 행위자들이 이끌어 낸, 그리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원으로서 이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변화하여 창출

된다”고 정의하였다(Portes, 1998). Burt(2001)는 “그것을 통해서 재정적 혹은 인적자본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친구, 동료, 혹은 보다 일반적인 관계들”이라고 보았다. 또한 Coleman은 사회자본이 출현하는데 밀집된 연결망을 강조한 반면, Burt는 연결망의 부재를 강조하였다. Coleman이 사회자본의 효과, 기능까지 포함하여 정의한 반면, Bourdieu는 개념정의에 있어 기원, 효과는 모두 제외시켰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정의와 그 안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속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되는 경향이 있다(한상미, 2007: 12-13). 첫째, 사회적 자본은 행위자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아니라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자본이다. 즉 둘 이상의 행위자가 맺고 있는 관계라는 분석단위의 특성이 사회적 자본을 다른 형태의 자본과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적 자원(personal resources)’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자원(social resources)’이라고 정의된다(Lin Nan a, 2001). 경제적 자본이 개인의 은행구좌에 있고, 인적자본이 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반면, 사회적 자본은 개인들의 관계구조에 있다. 사회적 자본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자기 이익의 실질적 원천이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이다(Portes, 1998). 이런 특징으로 인해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라고도 한다. 경제자본이나 인적자본은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재의 특징을 갖는데 반해, 사회적 자본은 사회관계의 부산물로 발생하며 그 혜택 또한 집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받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보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자본이다. 누군가 특정 집단에 소속되었다고 해서 집단의 구성원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모두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집단 구성원 사이에서 서로의 관계를 끊임없이 확인·재확인함으로써 인정을 받는 일련의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거쳐야만 사회적 자본은 유지되고 재생산될 수 있다(Bourdieu, 1986). 사회적 자본은 형성되기는 어려워도 파괴되기는 쉬우며, 손상된 사회적 자본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많은 노력을 요한다(구혜정, 2002: 33).그런 의미에서 한

개인이 특정한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투자한 결과라고 이해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한 사회적 교환관계는 다른 경제적 거래처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다. 신뢰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거래 당사자인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가 준 것만큼 줄어들고 받은 것만큼 늘어나는 영합(zero-sum)관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 자본은 거래 당사자 모두가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축적되고 더욱 증가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고갈되는 정합(positive-sum) 관계로 나타난다(Adler & Kwon, 2000).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은 사용하면 할수록 총량이 늘어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자기 강화적 자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적 생산과 파괴는 선순환 또는 악순환(virtuous or vicious circle)을 따를 것으로 기대된다(Putnam, 1993; 구혜정, 2002: 33 재인용). 넷째, 사회적 자본의 교환은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회적 교환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주고받은 도움에 대해 언젠가는 보상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은 ‘일반적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에 기반을 둔 자원인데 그 호혜성은 불확실성, 위험성 혹은 타인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취약하며 원천적으로 불안정한 성격을 띤다(Kollock, 1994; Luhman, 1988; Misztal, 1996; Newton, 1997).

사회적 자본은 학자와 학문마다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자본에 관한 대표적인 학자인 Bourdieu, Coleman 그리고 Putnam의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태정, 2007: 10-14). 부르디외는 교육학적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적용하였는데, 특히 사회적 자본에 대해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에 그는 자본 그 자체는 행위자가 지배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동원되는 모든 수단이며, 그 형태는 사회, 경제, 문화적 자본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 연관된 형태의 속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부르디외는 자본의 전환성을 특히 중요하게 여겼으며, 사회적 자본 역

시 특정한 조건에서는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부르디외는 사회적 자본을 “집단 구성원 간 상호 인식 혹은 인지가 어느 정도 제도화된 관계에 기반 해있는 지속적인 연계망(network)의 소유와 관련된 실질적 혹은 잠재적 자원의 총체”로 보고 있었다. 그러므로 ‘교환성’은 집단 간 재생산의 핵심이 되며, 관계망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단기적 기간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재생산하거나 확립하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되며, 그것은 개인과 집단, 의식과 무의식적 차원 모두를 포함한 하나의 ‘투자전략의 산물’로 이해된다(Bourdieu, 1986: 249). 이는 사회적 자본 개념의 도구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자본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다른 자본 즉 경제적·문화적 자본 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접근망을 얻게 된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Coleman은 사회적 자본에 대해 경제학적 접근과 사회학적 접근을 접목시켜 분석하였다. 또한 학력과 사회 불평등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적 자본이 매우 유용한 것으로 강조한다. Coleman(1988: 98)은 사회적 자본에 대해, “행위자가 가용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자원으로서, 개인 혹은 집합적 행위자의 특정 행위를 더욱 촉발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정의했다. 즉 사회적 자본이 자본인한, 생산적이어야 하며 그것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특정한 결과를 이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콜만의 사회적 자본이란 한 개인에게는 없지만 그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박찬웅, 2000: 82).

Coleman은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 위한 4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적 관계의 폐쇄성이다. 관계망에서 사람들이 활발한 자원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제공한 후 ‘나’ 역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 즉 사회구조의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신뢰성은 개개인이 잘 연결되어 있을수록, 즉 구성원들끼리 서로 알고 지낼수록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조의 폐쇄성은 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면 비록 그 당사자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

고,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회구성원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조건은 사회구조의 안정성이다. 만약 어떤 사회 내에 개인의 물리적, 사회적 이동이 극심하여 사람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뤄지기 힘들다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기 힘들다. 셋째,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이해를 개인의 이해보다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쉽게 만들어 진다. 이와 반대로 개인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마지막 조건으로서 기존의 사회 계층 내 유리한 위치에 있을수록 사회적 자본 역시 풍부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린(Lin, 1999)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사회 계층적 지위가 높을수록 물리적, 인적 자본을 많이 가지게 되고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양 역시 많아질 것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박찬웅, 2000: 88-89).

Coleman과 부르디외는 교육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사회적 자본이 기능할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자본의 개념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콜만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부정적 측면보다는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의 기능성 등을 강조했으나, 부르디외는 현대사회의 계급적 불평등이 사회적 자본의 불평등으로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비판적 입장을 가졌던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한편 사회적 자본의 폐쇄성과 관련된 콜만의 논의를 두고, 포르테(Portes, 1998)는 콜만이 지나치게 관계의 폐쇄성을 강조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새로운 지식과 자원으로의 접근은 밀착된 유대(dense tie)보다 약한 유대(weak tie)를 통해서 더욱 잘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콜만이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 역시 유대의 기능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어떤 정보나 영향을 전달하게 될 때 약한 유대는 폐쇄적 유대가 지니지 못한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강한 유대집단은 대개 유사한 인구사회학적 특징 및 사회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정보의 다양성, 확장성이 실제로 넓어지기 어렵다. 그러나 약한 유대로 연결될 경우 강한 유대집단 내부에서는 알

지 못하거나, 얻을 수 없는 자원을 더 잘 확보할 수 있다. 즉 그라노베터는 콜만과는 달리 약한 유대의 확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본다(Granovetter, 1973: 13-64).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콜만의 접근을 비엘리트 집단의 관계망에 관한 사회적 자본의 분석 영역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 있다(Stephen Baron, et al. 2000: 7-9).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퍼트남(2000)을 통해 더욱 발전되었다. 그는 특히 기존의 접근이 교육적, 사회적 차원에 머무르는 점을 뛰어넘어, 정책적 측면으로 사회적 자본의 논의수준을 확장시켰다. 최근 연구에서 그는 사회적 자본을 “참여자들로 하여금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함께 행동하도록 하게 만드는 사회생활의 특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네트워크(networks)와 규범(norms) 그리고 신뢰(trust)라고 제시했다. 그의 정의를 풀어보면,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을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은 전통적 자본과 달리 사적 재화가 아니라 공공재이며 축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Putnam, 1993: 35-37).

퍼트남의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사회참여를 두고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그가 제시한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정책 분석의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지금까지 서술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학자별 접근방법은 다소 개념적 차이가 있으나, 사람들 간의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이 발생한다는 점,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해야 함을 내세우는 점은 공통점이다(Burt, 1998).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정의와 접근 방식을 종합비교하면 다음 <표 2-4>정리된다. 퍼트남의 논의가 발전되면서 최근에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사회적 자본의 효과는 사회의 다양한 층위(layer)에서 확인된다. 시민참여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보다 나은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 연대와 협력

을 통한 사회적 효율성의 증진으로 그 영향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룬다. 먼저, 다양한 집단의 시민참여는 정부의 정치·경제적인 성과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표 2-4> 사회적 자본의 정의 및 접근방식의 비교

학자	사회적 자본의 정의	접근방식
Baker , 1990: 619	행위자(actor)들이 특정 사회 구조들로부터 얻어낸 뒤, 자신의 관심에 따라 이용하는 자원 : 그것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 변화에 의해 창조됨.	외재적
Bourdieu , 1989: 243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연결을 통해 만들어 짐. 특정 조건하에서는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계급의 형태로 제도화 될 수 있음.	외재적
Coleman , 1990: 302	사회적 자본은 그 기능을 통해 정의됨. 하나의 단일체라기 보다 복잡·다양한 총체성을 가지며 대체로 사회 구조 속에서 특정한 모습을 구성하게 되며 구조 내 개인의 특정 행위를 촉진시킴. 생산성과 축적성이 있음.	외재적
Portes , 1989: 6	사회 네트워크들 혹은 다른 사회적 구조들 안에 멤버십을 가짐으로써 이익을 지키는 행위자들의 능력.	외재적
Fukuyama , 1995: 15	집단과 조직 내의 공통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결집된 사람의 힘.	내재적
Inglehart , 1997: 188	자발적 결사체의 외재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뢰 및 관용의 문화.	내재적
Putnam , 1995: 67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 조정과 공동 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 조직의 형태.	내재적
Nahapiet & Ghoshal , 1998: 243	개인이나 사회 단위의 관계 네트워크 안에 깊이 내재해 있으면서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가능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된 실제적 · 잠재적인 자원들의 총합.	외재, 내재 병합
Woolcock , 1998: 153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 내재하는 정보, 신뢰, 규범.	외재, 내재 병합

출처 : (Adler and Kwon, 1999: 27-29; 박태정, 2007: 14 재인용)

NESF(2003)의 보고서는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접근이 정부정책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자본이 단

순히 국가나 지역 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연계(regional linkage)를 통해 파급되며 지역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 거시경제 수준에서도 개인 간 신뢰와 경제성장과의 연계가 있다는 국제비교 연구도 활발하다. 넥과 키퍼(Knack and Keefer, 1997; 송경재, 2005: 6-7 재인용)의 29개 국가에 대한 계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의 주요 구성요소인 신뢰수준이 10% 상승하면 연간 경제성장도 0.8% 포인트 상승하는 양의 상관성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은 사회적 자본이 효과적인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또는 지방정부의 효과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역 주민의식과 자원을 동원하는데 있어 사회자본의 활용은 지역사회 공동체 거버넌스와 연계되어 있다(Lin, 2001; 조화순·송경재, 2004: 재인용). 이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경제적 근대성 또는 정치적 경쟁과 같은 개념 보다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더 잘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박희봉, 2001; 박희봉·김명환, 2000; 소진광, 2004).

이상의 논의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은 사회과학 전 영역에서 다각적인 분석이론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면, 사회적 자본은 첫째 민주주의의 훈련장이자, 둘째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셋째 공적이익의 협력을 가능케 하고, 넷째 사회·정치적 참여의 확대 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송경재, 2005: 7).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시민사회의 발전과 경제·사회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론적인 프레임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 적용은 유형별로 그리고 나라 혹은 문화적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 다층적인 맥락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시민사회의 발전과 경제·사회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론적인 프레임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 적용은 사회적 자본의 유형별, 나라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 다층적인 맥락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최근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개념적인 소극성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인 정의로 확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사회적 자본을 집단 내 또는 집단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는 규범과

가치, 이해를 함께 공유하는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공공재(public goods)로 정의한다(OECD, 2001; NESF, 2003: 29; 송경재, 2005: 8 재 인용). 이는 지역·이웃·기업·가족·공동체나 자발적 결사체를 포괄하는 공동의 자원으로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유연하고 광의의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 논의는 긍정적인 평가만을 받고 있지는 않다. 일부에서는 사회적 자본 논의는 보수주의자들의 국가영역 축소, 시장기능의 강화라는 이데올로기에 복무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한다.

사회적 자본이 지나치게 사회 중심적 접근(society-centered approach)이며,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국가나 제도가 사회자본의 성장과 내용에 직접적 관련이 있고 사회자본 접근방식 역시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Cohen, 1999: 240-241; 송경재, 2005: 9 재인용). 이와 같이 이론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 논의는 시민사회와 국가제도의 선순환을 위한 문제해결 고리로서 학계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이론중의 하나이다.

2. 사회적 자본의 특성

사회적 자본의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유석춘·장미혜, 2002).

첫째,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내재하는 자본이다. 둘째,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의 이익은 자본의 소유자에게만 배타적으로 남으나, 사회적 자본은 이익이 공유된다. 셋째, 기존자본은 한번 획득하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보유할 수 있으나 사회적 자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한 사회적 교환관계는 다른 경쟁거래와 같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 등가물의 교환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본의 교환은 동시성을 전제로 하나, 사회적 자본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경제적 자본을 교환하는 시장과 사회적 자본을 교환하는 비정부 비영리영역에서 사회적 교환에 적용되는 개인의

동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표 2-5> 사회적 자본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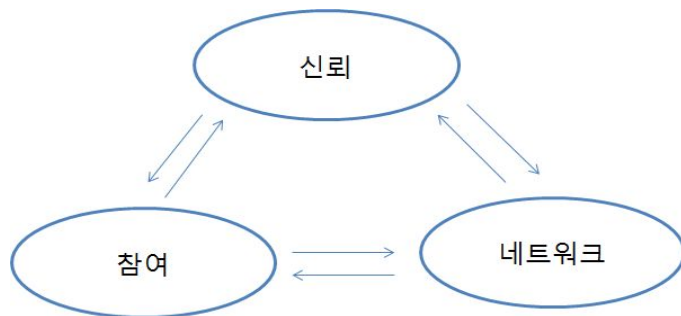
	경제적 자본	인적 자본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
이론적 의의	화폐가 아닌 생산 수단의 형태로 존 재하는 사존	자본가에 의해서 만 배타적으로 소 유될 수 있는 자 본에 대한 개념 수정	경제적 자본과 문 화적 자본의 불일 치	개인이 아닌 사 회적 관계 속에 서 파생되는 자 본
자본의 소유자	개인(자본가)	개인(노동자)	가족전체 또는 가족의 개별구성원	집단(사회집단)
소유자 이익	타인의 노동력에 근거한 경제적 이 익	노동시장에서 협 상력 증대, 높은 임금	다른 계급과의 구 별 짓기와 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정보의 획득, 사 회적 연대와 결 속의 창출
자본의 존재형태	물질적 대상(토지, 기계와 같은 생산 수단)	교육 및 직무훈련 을 통하여 노동자 에게 체화된 기술 과 지식	가족구성원에 의 해 공유되는 문화 적 취향	개별행위자가 아 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신뢰와 결속관계
연구의 핵심	자본가와 노동자사이의 관계	교육과정과 임금사이의 연관성	문화적 자본을 통한 세대 간 계급재생산	개인 혹은 집단사이의 관계형성
분석 수준	구조(계급)	개인	가족	개인/집단

출처 : 유석춘 · 장미혜(2002)

3.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의무감(obligation), 정보(information) 그리고 규범(norms)을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이탈리아 지방정부 성취도(performance)사회적 자본으로 설명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을 크게 확대시킨 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합리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속성(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선거와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많을수록 지역정부의 정책과정, 정책내용, 정책실행에 있어서의 성취도가 높을 것이라 예측하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를 입증한 바 있다. 그리고 자발적 참여는 사회적 자본의 규모가 크고 다양할수록 촉진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유형·무형의 가치 있는 자산으로, 행위자들 간의 지속적으로 상호교환 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자산들은 대략 ‘시민적 참여(civic participation)’,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s)” 그리고 “신뢰(trust)”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것은 사회적 자원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되는 혜택들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 네트워크, 참여는 서로 분리하여 고려할 수 없을 정도로 얽혀있다.



[그림 2-1]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그 관계

신뢰란 계약서나 차용증과 같은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자신이 타인에게 제공되는 자원을 언제인가는 되돌려 수혜할 것이라는 기대(Putnam, 1994; 2000)를 의미하며, 또한 배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자신의 기대나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기대에 근거하여 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지(Burt, 1998)를 말하는 것이다. 신뢰는 공적 신뢰와 사적 신뢰로 나눌 수 있는데(박길성, 2002: 1170-118) 전자의 경우는 특히 공공기관을 향한 신뢰라 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우리가 흔히 연줄이라 부르는 개인들 간의 유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적 신뢰의 정립과 그를 위한 현황과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는 우리 사회는 공적 신뢰에 비해 사적 신뢰가 매우 높다는 점, 공적 신뢰가 사회보다는 구성원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폐쇄적인 사적 신뢰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이정규, 2009: 17).

지금까지의 사회적 자본 연구모형은 구성원들에게 제공할 자원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만 이 자원들이 창출되려면, 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한다.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참여”라는 용어로 집약할 수 있다.

Putnam은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정도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는데, 그 이유는 시민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협력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화의 특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체에 가입하면 활동 외에도 좋은 이웃과 동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 등을 얻을 수 있다. 결국, 그 역시 Portes와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의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들 사이에 축적되는 네트워크, 그리고 네트워크 안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 발생하는 시민의식이나 규범과 신뢰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보았다(김용학, 2004: 122-124).

노인의 사회 참여는 고령사회에 대한 주요 대응책이 된다. 사회참여는 넓게는 경제적 의미에서의 생산적 활동과 더불어 사회적 또는 심리·사회적 의미에서의 생산적 활동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의 사회참여는 바로 고령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사회

적 자본이 된다(황진수·고재욱, 2010: 89).

Coleman이 지정한 세 가지 사회적 자본의 실체 가운데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개념이 되고 있다. 사회적 연결망 이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모두는 사회적 연결망 안에 있는 행위자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규범이나 속성보다 유대와 연결망 안에 있는 행위자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규범이나 속성보다 유대와 연결망의 종류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Wellman, 1983; 최종열, 2004에서 재인용).

네트워크는 행위자들 그리고 그들을 묶어주는 관계들의 집합이다.

네트워크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제도화라는 최초의 행위를 통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가운데 사회적 자본 개념의 핵심적 구성요소로서 비교적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논의하고 있는 요소인 신뢰, 참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였다.

4. 노인의 취업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노인 취업활동이 참여노인에게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으나, 소득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최은희, 2007: 33)는 찾을 수 있다.

먼저 빈곤층에게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취업, 승진, 직업적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자본이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연구들도 있다(Burt, 1998). 이러한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은 소득, 혹은 소비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 특히 탄자니아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Narayan과 Pritchett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측정된 사회적 자본의 양이 한 단위 증가하면, 가구소득은 교육과 재산을 통제하더라도 20-3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 중에 하나인 자원봉사활동은 전

통적 조직의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자본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Isham Kolodinsky & Kolodinslerly, 2006).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World Values Survey 조사결과 중 유럽의 것을 분석한 Whiteley(2000)의 연구에서도 자원봉사활동 정도는 개인수준의 사회적 신뢰를 설명하는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에서 취업한 노인과 미취업 노인의 사회적 자본의 양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취업노인과 미취업노인 사이에 평균값이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중앙값을 비교할 때 취업자의 사회적 자본 점수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이기홍, 2005: 9-10). 최은희(2007: 97-98)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참여자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사회적 자본의 생성으로 매개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자원봉사 및 취업이 사회적 자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인만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노인을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성원들이 상호 신뢰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많은 것을 성취해낼 수 있으며 나아가 구성원의 삶의 질 역시 높을 것이다.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가입 또한 특정 개인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신뢰나 지지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는 기제가 된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사람들은 삶의 질이 향상됨을 경험하게 된다. 요컨대 사회적 자본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관계의 중요한 내용물이다(박길성, 2002: 115-116).

또한 박희봉과 이회창(2005: 725-726)의 연구에서 삶의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네트워크와 신뢰, 즉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사회적 네트워크, 가족신뢰, 이웃신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자

본변수는 개별적으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사회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도 지속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모든 변수를 함께 고려했을 때, 사회적 자본의 일부 변수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이뤄진 노인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유일한 연구라 할 수 있는 이기홍(2005: 18)의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점을 시사한다. 먼저 취업여부별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연구결과에서 취업이 총 월수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갖고 있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수입이 삶의 만족도에 뚜렷이 영향을 주기는 하나, 여성노인의 경우는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이러한 성별차이는 경제활동이 남성노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노인에게서는 경제력보다 신뢰자와의 관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여부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경로분석을 한 결과, 미취업자들은 사회적 자본이 총 월수입과 삶의 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취업자의 삶의 만족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총 월수입이 유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노년기에 일과 수입이 있다는 사실이 삶을 만족스럽게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최은희,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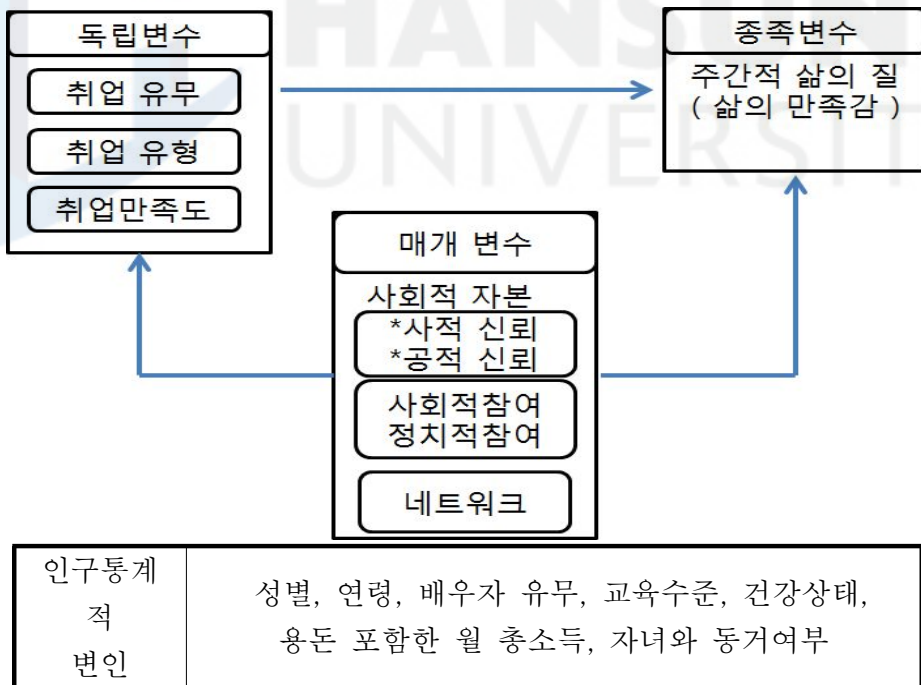
비록 노인 취업활동, 사회적 자본 그리고 노년기 삶의 질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부재하나,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노인 취업활동과 삶의 질 사이의 관계를 사회적 자본이 매개한다는 가정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노인 취업활동과 삶의 질 두 변인관계를 매개한다는 가정 하에 변인들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모형 및 조사 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노인의 취업활동 참여유무와 사업유형, 취업만족감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main effect, 주효과)과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영향력(mediator effect, 간접효과)을 분석하고자 한다.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3-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3- 1]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문제 및 가설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노인의 취업활동 참여에 따른 관련 요인과의 관계모형을 도출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노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 및 취업활동 참여유무, 유형, 취업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노인의 취업활동 참여는 사회적 자본과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어떠한 차이와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3] 노인의 사회적 자본은 노인 취업활동과 주관적 삶의 질 관계를 매개하는가?

2. 연구가설

가설 1. 노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노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취업활동 참여유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노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취업활동 참여유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노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취업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노인의 취업활동 참여유무, 유형, 취업만족도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자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5-1. 노인의 취업활동 참여유무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자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5-2. 노인의 취업활동 참여유형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자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5-3. 노인의 취업활동 취업만족도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자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노인의 취업활동 참여유무, 유형, 취업만족도에 따라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6-1. 노인의 취업활동 참여유무에 따라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6-2. 노인의 취업활동 참여유형에 따라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6-3. 노인의 취업활동 취업만족도에 따라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7. 노인의 취업활동 참여유무와 사회적 자본은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7-1. 노인의 취업활동 참여유무는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7-2. 노인의 사회적 자본은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사회적 자본은 노인의 취업활동 참여가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매개효과로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노인의 취업활동 참여가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매개효과로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사회적 자본이 낮을 경우 노인의 취업활동 참여가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매개효과로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앞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입각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요변수를 선정하고 변수측정을 위한 설문지를 <표 3-1>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3-1> 측정변수의 문항구성

변수			문항 수
사회적 자본	사적 신뢰	6문항	29
	공적 신뢰	11문항	
	사회적 참여	7문항	
	정치적 참여	2문항	
	네트워크	3문항	
삶의 질	만족(5문항)		5
취업활동	참여 유무	1문항	3
	취업 유형	1문항	
	취업 만족도	1문항	
인구 통계학적 요인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가구 총소득, 건강 상태, 자녀와의 동거		7
총 문 항 수			44

먼저 인구통계학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가구 총소득, 건강 상태, 자녀와의 동거 등 7가지 인구·사회적 특성을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는 노인의 취업활동 참여 유무와 취업 유형, 만족을 묻는 질문으로 3가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은 신뢰, 참여, 네트워크로 구성되는데 신뢰의 하위변수로는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 참여는 사회적 참여와 정치적 참여와 네트워크 등 5가지 구성요소로 29가지 문항을 질문하였다.

끝으로 종속변수인 삶의 질은 Diener et al.(1985)에 의해 개발된 S 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척도를 사용한 삶의 만족 5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개념 및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통계학적인 변인

자료수집의 대상과 범위는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에 따른 총 500부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취업활동 중인 노인과 취업하지 않은 노인, 사업유형의 분포를 반영하여, 자기 기입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서울시 강북지역 6개구를 권역으로 하고, 이들 권역에 소재하는 노인종합복지관 6개를 선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건강 상태, 가구 총소득, 자녀와의 동거 등 7개 문항을 질문하였다.

2) 독립변수

(1) 취업활동 참여 (유무, 유형, 취업 만족도)

노인의 취업활동은 노인의 소득보장, 일에 대한 재미, 건강유지, 여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리고 취업활동 참여에 대한 개념 구성의 내용은 참여 유무와 참여 유형 그리고 취업 만족으로 구분한다. 취업활동 유형은 공익형, 교육·복지형, 시장형 등 세 가지 유형마다 참여노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감이 다를 것이라는 전제로, 참여사업의 종류를 묻는 문항을 배치하였다. 취업 만족은 5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하였다.

<표 3-2> 취업활동 참여 유형

구분	일자리 예시
공익형	거리환경지킴이, 자연환경지킴이, 지역행정지킴이, 불법주차단속·계도 등
교육·복지형	공원관리원, 청사관리원, 주유원, 식당보조원, 매표원, 급식지도원, 주례, 가사도우미, 청소원, 주차관리원, 학교내 학습장 관리, 생태/문화재 해설사, 컴퓨터 강사 등
시장형	간병인 사업단, 지하철택배사업단, 세탁방, 도시락사업, 재활용품점, 번역·통역사업, 실버용품점 운영, 전통공예, 문화상품 제작판매 등

3) 종속변수

(1)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삶의 만족감)

주관적 삶의 질은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적 안녕감을 의미하며, 삶의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삶의 질이라는 잠재변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삶의 만족도 측정변인들을 사용하였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Diener, Emmons, Larson

과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통해 측정하였다. SWLS는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4) 매개변수

(1) 사회적 자본

본 연구는 노년기의 취업활동이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기홍(2005: 최은희, 2007, 재인용)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이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가정하였으며, 사회적 자본은 신뢰, 참여, 네트워크의 세 가지의 변수로 구분하여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① 신뢰

신뢰의 영역 및 범위는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적 신뢰(타인에 대한 신뢰도)와 공적 신뢰(정부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였다.

사적 신뢰는 가족, 친척, 친구, 같은 종교 신도, 취미모임 회원, 이웃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묻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5문항). 이 문항의 신뢰도는Cronbach' $\alpha = .792$ 이다. 각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 후 합산된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점수로 사적 신뢰를 측정하였다.

공적 신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관 즉, 국회, 법원, 정부, 서울시청, 구청, 동사무소, 경찰, 시민단체, 교육기관, 언론기관, 종교단체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를 묻고 전적으로 믿음 5, 대개 믿는 편 4, 보통 3, 믿지 않는 편 2, 전혀 믿지 않음 1 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 후 합산된 총점을 문항수로 나눈 점수로 공적 신뢰를

측정하였다(11문항). 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94이다.

② 참여

참여는 사회적 참여와 정치적 참여로 구성한다. 사회적 참여는 지역 사회 단체/모임에 참여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778 이다. 정치적 참여는 정치헌금, 청원서, 탄원서, 서명, 집회나 시위 참여 등 경험 정도를 묻고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657이다.

③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3개의 영역을 나누어 한 가지씩 총 3개의 문항을 질문한다. 가사일과 관련된 도구적 원조를 파악도록 선정하고(용돈을 받거나 간단한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 정서적 지지와 관련된 문항은 사적인 조언과 동반활동의 수준을 파악하도록 선정하였으며(고민이나 걱정이 있을 때 조언이나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보의 측면을 측정할 문항으로는 민원과 취업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취업이나 민원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였다. 각 질문 문항별 원조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의 숫자를 최대 10로 기입하게 하고 이를 합산하여 측정하며, 사람 숫자 최소 0점에서 한 명당 1의 값을 갖는다.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원을 제공받을 때 삶의 만족이 높아질 것이라 예측한다(이정규, 2009).

2. 측정도구 및 신뢰도 검증

1) 신뢰도분석

신뢰성이란 측정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뜻하며 측정변수의 진정한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들에 관한 정확성이나 정밀성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에 사용되는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알파계수의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항목을 제거하여 알파계수 향상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표3-3> 신뢰도 분석

측정변수	Cronbach의 알파
사적 신뢰	.792
공적 신뢰	.894
사회적 참여	.778
정치적 참여	.657
네트워크	-
삶의 질	.800

<표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사적 신뢰에 대한 신뢰계수는 .792로 나타났으며, 공적 신뢰에 대한 신뢰계수는 .894, 사회적 참여에 대한 신뢰계수는 .778, 정치적 참여에 대한 신뢰계수가 .657, 삶의 질에 대한 신뢰계수가 .800로 나타나, 모든 문항에서 Cronbach의 알파계수 값이 .6 이상으로 나타나,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각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표본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 492명

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취업활동 중인 노인과 취업하지 않은 노인, 사업유형의 분포를 반영하여, 자기 기입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서울시 강북지역 6개구를 권역으로 하고, 이들 권역에 소재하는 노인종합복지관 6개를 선정하였다. 표본 추출은 편의 추출법을 이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1년 4월 04일부터 2011년 4월 26일까지 3주 동안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포 방법은 자기기입식 및 배포조사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500부를 현장에서 배부하여 492부를 회수 하였다.

<표3-4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구 분	내 용
표본의 선정	6개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500명
표본추출법	편의 추출법
조사기간	2011.4. 04.-2011.4. 26
설문지 배포방법	자기기입식 및 배포조사법
표본 크기 및 회수율	표본 크기 : 492부, 98%

2. 자료의 분석 방법

첫째, 각 영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 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노인 취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 way-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취업유무, 유형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스퀘어(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취업활동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 way-anova)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노인 일자리 취업 유형,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노인 취업 활동 만족도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덟째, 노인의 취업활동 만족도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자본 매개효과)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 $p<.01$, $p<.001$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 4 장 연 구 결 과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본 연구는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492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가구 총소득, 건강 상태, 자녀와의 동거의 7가지 요소와 노인의 취업활동 참여유무, 참여 유형에 따른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 성별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성별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성별분포는 남성이 162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 492명중 3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330명으로 전체의 67.1%로 남성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4-1>와 같다.

<표 4-1> 성별의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명)	퍼센트(%)
남성	162	32.9
여성	330	67.1
총계	492	100.0

2) 연령

설문의 대상인 492명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70세 이하 연령대의 노인이 216명으로 전체 492명 대비 43.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71~75세 연령대가 150명으로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6세 이상 노인은 126명으로 25.6%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표로 요약하면 < 표 4-2 >와 같다.

<표 4-2> 연령의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명)	퍼센트(%)
70세 이하	216	43.9
71~75세	150	30.5
76세 이상	126	25.6
총계	492	100.0

3) 배우자 유무

빈도분석 결과, 배우자가 존재하는 노인이 328명으로 전체의 66.7%,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노인이 164명으로 전체의 33.3%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4-3>와 같다.

<표 4-3> 배우자 유무의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명)	퍼센트(%)
있다	328	66.7
없다	164	33.3
총계	492	100.0

4) 교육 수준

조사 대상자의 최종학력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중·고등학교의 최종 학력이 228명으로 전체 492명 중 4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초졸이 187명으로 38%, 대학졸이 63명으로 12.8%, 대학원졸은 14명으로 2.8%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약하면 <표 4-4>와 같다.

<표 4-4> 교육수준의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명)	퍼센트(%)
초등학교졸	187	38.0
중고등학교졸	228	46.3
대학교졸	63	12.8
대학원졸	14	2.8
총계	492	100.0

5) 월 평균 소득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노인의 월 평균 소득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인 216명으로 전체 492명 중 4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5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인 171명으로 34.8%, 10만원 미만은 52명으로 10.6%,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38명으로 7.7%, 300만원 이상 15명으로 3.0%를 보이며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의 월 평균 소득의 빈도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4-5>와 같다.

<표 4-5> 월 평균 소득의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명)	퍼센트(%)
10만 원 미만	52	10.6
10만원이상~50만원 미만	216	43.9
50만원이상~150만원 미만	171	34.8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8	7.7
300만원 이상	15	3.0
총계	492	100.0

6) 건강상태

조사대상 노인 492명에 대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가진단 형식의 건강상태를 질문한 결과, 건강한 편이라고 답변한 노인이 492명중 226명 중 4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라고 답변한 노인은 219명으로 전체의 44.5%, 건강하지 못하다는 답변은 47명으로 전체의 9.6%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빈도분석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표 4-6>과 같다.

<표 4-6> 건강상태의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명)	퍼센트(%)
건강한 편이다	226	45.9
보통이다	219	44.5
건강하지 못하다	47	9.6
총계	492	100.0

7) 자녀와의 동거여부

빈도분석 결과,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는 노인이 270명으로 전체의 54.9%, 동거 중인 노인이 201명으로 전체의 40.9%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노인이 21명으로 전체 4.3%로 나타났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4-7>과 같다.

<표 4-7> 자녀와의 동거여부의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명)	퍼센트(%)
동거중	201	40.9
별거중	270	54.9
자녀없음	21	4.3
총계	492	100.0

8) 노인 취업에 관한 빈도분석 결과

노인 취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8> 노인 취업에 관한 빈도분석 결과

	질문 내용	빈도	퍼센트
취업 유무	취업 무	193	39.2
	취업 유	299	60.8
취업 유형	공익형	101	33.8
	교육 복지형	105	35.1
	시장형	93	31.1
	합계	299	100.0
취업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0	6.7
	만족하지 않는다	137	45.8
	보통이다	109	36.5
	만족한다	24	8.0
	매우 만족한다	9	3.0
	합계	299	100.0
합계		492	100.0

취업 유무는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 중인 경우가 60.8%, 취업 중이 아닌 경우가 39.2%로 나타났으며, 취업유형은 교육 복지형이 35.1%, 공익형이 33.8%, 시장형이 31.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활동 취업만족도는 만족하지 않는다가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통이다가 36.5%, 만족한다가 8.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6.7%, 매우 만족한다가 3.0%로 순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각 변수들에 대한 분석

1.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단순 상관관계분석이란 한 변수가 다른 하나의 변수와 관련성이 있을 때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알아볼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주로 두 변수가 등간 또는 비율척도로 측정된 변수인 경우에 Pearson의 상관관을 통하여 분석하며, 이 때 도출된 상관계수를 통해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상관계수가 .80 이상이 될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하게 된다.

노인 취업 참여 유무, 유형, 취업만족, 주관적 삶의 질,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표4-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독립변수, 매개변수, 그리고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는 없었다. <표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 사항, 삶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력과 삶의 질과는 $r=.124(p<.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소득과 삶의 질과는 $r=.130(p<.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와 삶의 질과는 $r=.137(p<.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자녀와의 동거와 삶의 질과는 $r=.093(p<.05)$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자녀와의 동거를 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사적신뢰와 삶의 질과는 $r=.252(p<.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사적신뢰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공적신뢰와 삶의 질과는 $r=.187(p<.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공적신뢰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4-9> 일반적 사항, 삶의 질과의 관계

	성별	연령	배우 자유 무	학력 더미	소득 더미	건강 상태	자녀 와의 동거 더미	사적 신뢰	공적 신뢰	사회 적참 여	정치 적참 여	네트 워크	취업 유무	공익 형	시장 형	취업 만족 도	삶의 질
성별	1																
연령	-.115 (*)	1															
배우자 유무	.229 (**)	.037	1														
학력 더미	-.217 (**)	.043	-.106 (*)	1													
소득 더미	-.054	-.266 (**)	-.222 (**)	.240 (**)	1												
건강 상태	-.040	.118 (**)	-.177 (**)	.048	.047	1											
자녀와 의동거 더미	.114 (*)	-.014	-.060	-.077	-.052	-.015	1										
사적 신뢰	.101 (*)	.116 (*)	-.043	.053	.015	.128 (**)	.104 (*)	1									
공적 신뢰	.016	.068	-.005	.087	.013	.087	.039	.462 (**)	1								
사회적 참여	.025	.127 (**)	-.029	.304 (**)	.083	.132 (**)	.120 (**)	.285 (**)	.208 (**)	1							
정치적 참여	.082	.007	-.037	.148 (**)	.153 (**)	.085	.004	.259 (**)	.174 (**)	.288 (**)	1						
네트 워크	.050	-.020	.015	.053	.055	-.012	-.071	.123 (**)	.060	.213 (**)	.092 (*)	1					
취업 유무	.163 (**)	-.247 (**)	-.112 (*)	-.016	.049	.155 (**)	.116 (*)	.210 (**)	.277 (**)	.149 (**)	.155 (**)	-.016	1				
공익형	.202 (**)	.112 (*)	.024	-.134 (**)	-.304 (**)	.145 (**)	.145 (**)	.205 (**)	.162 (**)	.198 (**)	.101 (*)	-.043	.363 (**)	1			
시장형	-.012	-.336 (**)	-.102 (*)	-.168 (**)	.345 (**)	-.010	.054	-.043	-.050	-.154 (**)	.012	-.065	.380 (**)	-.256 (**)	1		
취업만 족도	-.117 (*)	-.297 (**)	-.162 (**)	.336 (**)	.836 (**)	.104	-.161 (**)	-.068	-.080	.100	.028	.246 (**)	.a	-.361 (**)	.323 (**)	1	
삶의질	.080	.025	-.009	.124 (**)	.130 (**)	.137 (**)	.093 (*)	.252 (**)	.187 (**)	.314 (**)	.167 (**)	.079	-.007	.041	-.090 (*)	.174 (**)	1

*p<.05,**p<.01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과는 $r=.314(p<.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사회적 참여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참여와 삶의 질과는 $r=.167(p<.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정치적 참여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장형과 삶의 질과는 $r=-.090(p<.05)$ 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시장형일수록 삶의 질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활동 취업만족도와 삶의 질과는 $r=.174(p<.01)$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취업활동 취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제 3 절 연구 가설의 검증

앞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다음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 및 취업활동 참여유무, 유형, 취업 만족은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둘째, 노인의 취업활동 참여는 사회적 자본과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어떠한 차이와 영향이 있는지 살펴본다.

셋째, 노인의 사회적 자본은 노인 취업활동과 주관적 삶의 질 관계를 매개하는 지 살펴본다.

가설 1.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삶의 질 차이는 남자가 2.88점, 여자가 3.01점으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4-10>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 확률	Scheffe
성별	남	162	2.88	.711	-1.77 5	.077	
	여	329	3.01	.840			
연령	70세 이하	215	2.99	.804	2.166	.116	
	71~75세	150	2.87	.747			
	76세 이상	126	3.06	.852			
	합계	491	2.97	.801			
배우자 유무	있다	327	2.97	.763	.206	.837	
	없다	164	2.96	.875			
교육 수준	초등학교졸	187	2.86	.820	3.293*	.020	a,b<c,d
	중 고등학교졸(b)	227	2.99	.763			
	대학교졸(c)	63	3.18	.872			
	대학원 이상(d)	14	3.23	.592			
	합계	491	2.97	.801			
월평균 소득	10만원 미만	52	2.43	.691	8.107 ***	.000	a<b,c,d,e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b)	216	2.98	.756			
	5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c)	170	3.07	.819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d)	38	3.02	.759			
	300만원 이상(e)	15	3.37	.962			
	합계	491	2.97	.801			
건강상 태	건강한 편이다	226	3.08	.831	4.698 **	.010	c<a,b
	보통이다(b)	218	2.90	.739			
	건강하지 못하다(c)	47	2.77	.870			
	합계	491	2.97	.801			
자녀와 의 동거 여부	동거	200	3.06	.861	2.261	.105	
	별거	270	2.92	.742			
	자녀 없음	21	2.81	.895			
	합계	491	2.97	.801			

*p<.05,**p<.01,***p<.001

월평균 소득에 따른 삶의 질 차이는 300만 원 이상 소득자가 3.37점으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소득자가 3.07점, 1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소득자가 3.02점, 10만 원 이상~50만원 미만 소득자가 2.98점, 10만 원 미만 소득자가 2.4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F=8.107$,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상태에 따른 삶의 질 차이는 건강한 편이 3.08점으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인 경우가 2.90점,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2.7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F=4.698$,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와의 동거에 따른 삶의 질 차이는 동거하는 경우가 3.06점으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하는 경우가 2.92점, 자녀가 없는 경우가 2.81점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설 2.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취업활동 참여유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유무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표4-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4-11>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유무 차이

		취업 무	취업 유	전체	χ^2	df	p
성별	남	82	80	162	13.143 ***	1	.000
		50.6%	49.4%	100.0%			
	여	111	219	330			
		33.6%	66.4%	100.0%			
연령	70세 이하	51	165	216	39.431 ***	2	.000
		23.6%	76.4%	100.0%			
	71~75세	78	72	150			
		52.0%	48.0%	100.0%			
	76세 이상	64	62	126			
		50.8%	49.2%	100.0%			
배우자 유무	있다	116	212	328	6.156*	1	.013 <표 계속>
		35.4%	64.6%	100.0%			
	없다	77	87	164			
		47.0%	53.0%	100.0%			

		취업 무	취업 유	전체	χ^2	df	p
교육 수준	초등학교졸	62	125	187	4.762	3	.190
		33.2%	66.8%	100.0%			
	중 고등학교졸	99	129	228			
		43.4%	56.6%	100.0%			
	대학교졸	26	37	63			
		41.3%	58.7%	100.0%			
월 평균 소득	10만원 미만	6	8	14	12.223 *	4	.016
		42.9%	57.1%	100.0%			
	10만원이상 ~50만원 미만	32	20	52			
		61.5%	38.5%	100.0%			
	50만원이상 ~150만원 미만	79	137	216			
		36.6%	63.4%	100.0%			
건강 상태	15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62	109	171	13.602 ***	2	.001
		36.3%	63.7%	100.0%			
	300만원 이상	14	24	38			
		36.8%	63.2%	100.0%			
	건강한 편이다	6	9	15			
		40.0%	60.0%	100.0%			
자녀 와의 동거 여부	보통이다	75	151	226	7.435*	2	.024
		33.2%	66.8%	100.0%			
	건강하지 못하다	89	130	219			
		40.6%	59.4%	100.0%			
	동거	29	18	47			
		61.7%	38.3%	100.0%			
자녀 와의 동거 여부	별거	65	136	201	7.435*	2	.024
		32.3%	67.7%	100.0%			
	자녀 없음	117	153	270			
		43.3%	56.7%	100.0%			
		11	10	21			
		52.4%	47.6%	100.0%			

*p<.05,**p<.01,***p<.001

<표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유무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취업 중인 경우가 60.8%, 취업 중이 아닌 경우가 39.2%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인 경

우는 취업 중이 아닌 경우가 50.6%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여자인 경우는 취업 중인 경우가 66.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chi^2=13.143$,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 살펴보면 70세 이하인 경우가 취업중인 경우가 76.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연령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71~75세인 경우는 취업중이 아닌 경우가 52.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chi^2=39.431$,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취업중인 경우가 64.6%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취업중이 아닌 경우가 47.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chi^2=6.156$,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에 따른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유무 차이는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 살펴보면 10만원 미만 소득자인 경우는 취업중이 아닌 경우가 61.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소득자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5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소득자인 경우는 취업중인 경우가 63.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소득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chi^2=12.223$,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상태에 따라서 살펴보면 건강한 편인 경우는 취업중인 경우가 66.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건강상태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건강하지 못한 경우는 취업중이 아닌 경우가 61.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건강상태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chi^2=13.602$,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서 살펴보면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취업중인 경우가 67.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자녀가 없는 경우는 취업중이 아닌 경우가 52.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chi^2=7.435$,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설 3.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취업활동 참여유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4-12>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 유형 차이

		공익형	교육 복지형	시장형	전체	χ^2	df	p
성별	남	16	38	32	134	12.625 **	2	.002
		18.6%	44.2%	37.2%	100.0%			
	여	91	75	62	270			
		39.9%	32.9%	27.2%	100.0%			
연령	70세 이하	39	52	77	168	52.106 ***	4	.000
		23.2%	31.0%	45.8%	100.0%			
	71~75세	30	39	10	79			
		38.0%	49.4%	12.7%	100.0%			
	76세 이상	38	22	7	67			
		56.7%	32.8%	10.4%	100.0%			
배우자 유무	있다	69	79	72	220	3.501	2	.174
		31.4%	35.9%	32.7%	100.0%			
	없다	38	34	22	94			
		40.4%	36.2%	23.4%	100.0%			
교육 수준	초등학교졸	60	27	41	128	66.793 ***	6	.000 <표 계속>
		46.9%	21.1%	32.0%	100.0%			
	중 고등학교졸	40	44	51	135			
		29.6%	32.6%	37.8%	100.0%			
	대학교졸	6	36	1	43			
		14.0%	83.7%	2.3%	100.0%			
	대학원 이상	1	6	1	8			
		12.5%	75.0%	12.5%	100.0%			

		공익형	교육 복지형	시장형	전체	χ^2	df	p
월평균 소득	10만원 미만	8	8	4	20	90.543 ***	8	.000
		40.0%	40.0%	20.0%	100.0%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81	51	14	146			
		55.5%	34.9%	9.6%	100.0%			
	50만원이상 ~150만원 미만	16	37	61	114			
		14.0%	32.5%	53.5%	100.0%			
	15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2	10	12	24			
		8.3%	41.7%	50.0%	100.0%			
건강 상태	건강한 편이다	0	7	3	10	10.956 *	4	.027
		.0%	70.0%	30.0%	100.0%			
	보통이다	66	55	39	160			
		41.3%	34.4%	24.4%	100.0%			
	건강하지 못하다	33	53	49	135			
		24.4%	39.3%	36.3%	100.0%			
	자녀 와의 동거 여부	8	5	6	19			
		42.1%	26.3%	31.6%	100.0%			
자녀 와의 동거 여부	동거	58	38	44	140	18.697 ***	4	.001
		41.4%	27.1%	31.4%	100.0%			
	별거	49	72	43	164			
		29.9%	43.9%	26.2%	100.0%			
	자녀 없음	0	3	7	10			
		.0%	30.0%	70.0%	100.0%			

*p<.05,**p<.01,***p<.001

<표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 유형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교육 복지형이 36.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익형이 34.1%, 시장형이 29.9%로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살펴보면 남자인 경우는 교육 복지형이 44.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여자인 경우는 공익형이 39.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는 $\chi^2=12.625$,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 살펴보면 70세 이하인 경우는 시장형이 45.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연령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71~75세인 경우는 교육 복지형이 49.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76세 이상인 경우는 공익형이 56.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chi^2=52.106$,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 살펴보면 취업 유형 차이는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자인 경우는 공익형이 46.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교육수준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대학교 졸업인 경우는 교육 복지형이 83.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교육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chi^2=66.793$,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 살펴보면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소득자인 경우는 공익형이 55.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소득자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300만 원 이상 소득자인 경우는 교육 복지형이 70.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소득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chi^2=90.543$,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상태에 따라서 살펴보면 보통인 경우는 교육 복지형이 39.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건강하지 못한 경우는 공익형이 42.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chi^2=10.956$,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따라서 살펴보면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공익형이 41.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는 교육 복지형이 43.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없는 경우는 시장형이 70.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chi^2=18.697$,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설 4.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취업활동 취업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4-13>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활동 취업만족도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 확률	Scheffe
성별	남	80	2.71	1.021	2.023*	.044	
	여	219	2.49	.774			
연령	70세 이하(a)	165	2.80	.828	17.882 ***	.000	b,c<a
	71~75세(b)	72	2.24	.813			
	76세 이상(c)	62	2.24	.740			
	합계	299	2.55	.851			
배우자 유무	있다	212	2.64	.857	2.832**	.005	
	없다	87	2.33	.802			
교육 수준	초등학교졸(a)	125	2.29	.670	15.502 ***	.000	a,b<c,d
	중 고등학교졸(b)	129	2.57	.818			
	대학교졸(c)	37	3.11	.936			
	대학원 이상(d)	8	3.63	1.408			
	합계	299	2.55	.851			
건강 상태	건강한 편이다	151	2.62	.877	1.699	.185	
	보통이다	130	2.50	.828			
	건강하지 못하다	18	2.28	.752			
	합계	299	2.55	.851			
자녀 와의 동거 여부	동거(a)	136	2.40	.791	4.069*	.018	a<b,c
	별거(b)	153	2.68	.893			
	자녀 없음(c)	10	2.60	.699			
	합계	299	2.55	.851			

*p<.05,**p<.01,***p<.001

<표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활동 취업만족도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취업활동 취업만족도 차이는 남자가 2.71점, 여자가 2.49점으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취업활동 참여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2.023$,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취업활동 취업만족도 차이는 70세 이하인 경우가 2.80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1~75세인 경우가 2.24점, 76세 이상인 경우가 2.24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F=17.882$,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취업활동 취업만족도 차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2.64점,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2.33점으로 나타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취업활동 참여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2.832$, $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에 따른 취업활동 취업만족도 차이는 대학원 이상자가 3.63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졸업자가 3.11점, 중 고등학교 졸업자가 2.57점, 초등학교 졸업자가 2.29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F=15.502$,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상태에 따른 취업활동 취업만족도 차이는 건강한 경우가 2.62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인 경우가 2.50점,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2.28점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취업활동 취업만족도 차이는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가 2.68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가 2.60점,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2.40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F=4.069$,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설 5. 노인의 취업활동 참여유무, 유형, 취업만족도에 따라 사회적 자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유무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취업유무에 따른 사적 신뢰는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3.57점, 취업을 한 경우가 3.86점으로 나타나 취업을 한 경우가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사적 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4.755$,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유무에 따른 공적 신뢰는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2.97점, 취업을 한 경우가 3.37점으로 나타나 취업을 한 경우가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공적 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6.389$,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유무에 따른 사회적 참여는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2.12점, 취업을 한 경우가 2.40점으로 나타나 취업을 한 경우가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 참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14> 취업유무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

	취업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 확률
사적신뢰	취업 무	193	3.57	.649	-4.755***	.000
	취업 유	299	3.86	.647		
공적신뢰	취업 무	193	2.97	.653	-6.389***	.000
	취업 유	299	3.37	.686		
사회적참여	취업 무	193	2.12	.818	-3.345***	.001
	취업 유	299	2.40	.924		
정치적참여	취업 무	192	2.53	.626	-3.477***	.001
	취업 유	299	2.74	.668		
네트워크	취업 무	184	17.79	19.541	.340	.734
	취업 유	293	17.15	20.339		

*** $p<.001$

이는 $t=-3.345$,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유무에 따른 정치적 참여는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2.53점, 취업을 한 경우가 2.74점으로 나타나 취업을 한 경우가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정치적 참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3.477$,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유무에 따른 네트워크는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17.79점, 취업을 한 경우가 17.15점으로 나타나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취업을 한 경우보다 네트워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4-15> 취업유형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Scheffe
사적 신뢰	공익형(a)	107	4.00	.682	6.180* *	.002	b,c<a
	교육 복지형(b)	113	3.84	.631			
	시장형(c)	94	3.69	.588			
	합계	314	3.85	.647			
공적 신뢰	공익형(a)	107	3.43	.712	7.462* **	.001	c<a,b
	교육 복지형(b)	113	3.48	.696			
	시장형(c)	94	3.14	.570			
	합계	314	3.36	.680			
사회적 참여	공익형(a)	107	2.63	.913	13.840 ***	.000	c<a,b
	교육 복지형(b)	113	2.53	.931			
	시장형(c)	94	2.01	.800			
	합계	314	2.41	.923			
정치적 참여	공익형	107	2.78	.687	.806	.448	
	교육 복지형	113	2.77	.641			
	시장형	94	2.67	.654			
	합계	314	2.74	.661			
네트 워크	공익형	105	15.78	18.353	2.288	.103	
	교육 복지형	108	20.31	21.178			
	시장형	94	14.77	20.016			
	합계	307	17.07	19.975			

p<.01,*p<.001

<표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유형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취업유형에 따른 사적 신뢰는 공익형이 4.00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복지형이 3.84점, 시장형이 3.69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F=6.180, p<.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유형에 따른 공적 신뢰는 교육 복지형이 3.48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익형이 3.43점, 시장형이 3.14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F=7.462, 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유형에 따른 사회적 참여는 공익형이 2.63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복지형이 2.53점, 시장형이 2.01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F=13.840, 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취업유형에 따른 정치적 참여는 공익형이 2.78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복지형이 2.77점, 시장형이 2.67점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취업유형에 따른 네트워크는 교육 복지형이 20.31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익형이 15.78점, 시장형이 14.77점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4-16> 취업활동 취업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Sc6heffe
사적 신뢰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0	3.80	.702	1.932	.105	
	만족하지 않는다	137	3.96	.688			
	보통이다	109	3.76	.587			
	만족한다	24	3.73	.598			
	매우 만족한다	9	4.04	.551			
	합계	299	3.86	.647			
공적 신뢰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0	3.49	.787	1.018	.398	
	만족하지 않는다	137	3.43	.698			
	보통이다	109	3.27	.702			
	만족한다	24	3.35	.503			
	매우 만족한다	9	3.37	.408			
	합계	299	3.37	.686			
사회적 참여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a)	20	1.76	.736	4.795 ***	.001	a<e
	만족하지 않는다(b)	137	2.50	.872			
	보통이다(c)	109	2.34	.964			
	만족한다(d)	24	2.31	.946			
	매우 만족한다(e)	9	3.17	.752			
	합계	299	2.40	.924			
정치적 참여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0	2.78	.550	.496	.739	
	만족하지 않는다	137	2.68	.720			
	보통이다	109	2.80	.649			
	만족한다	24	2.75	.511			
	매우 만족한다	9	2.67	.750			
	합계	299	2.74	.668			
네트워 크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a)	17	11.88	23.590	5.873 ***	.000	a<e
	만족하지 않는다(b)	135	14.16	14.958			
	보통이다(c)	108	17.80	20.322			
	만족한다(d)	24	25.25	24.224			
	매우 만족한다(e)	9	42.56	43.472			
	합계	293	17.15	20.339			

*** $p<.001$

<표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활동 취업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취업활동 취업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참여는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3.17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2.50점, 보통이 2.34점, 만족하는 경우가 2.31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1.76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F=4.795$,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01$)

취업활동 취업만족도에 따른 네트워크는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42.56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하는 경우가 25.25점, 보통이 17.80점,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14.16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11.88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F=5.873$,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01$)

반면, 취업활동 취업만족도에 따른 사적신뢰, 공적신뢰, 정치적 참여는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설 6. 노인의 취업활동 참여유무, 유형, 취업만족도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4-17> 취업유무/ 취업 유형/취업만족도에 따른 삶의 질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t/F	유의 확률	Scheffe
취업 유무	취업 무	193	2.98	.777	.158	.874	
	취업 유	298	2.96	.818			
취업 유형	공익형	107	3.03	.875	2.532	.081	
	교육 복지형	113	3.06	.839			
	시장형	93	2.82	.728			
	합계	313	2.98	.825			
취업 만족 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a)	20	2.33	.806	4.766 ***	.001	a<e
	만족하지 않는다(b)	137	2.98	.758			
	보통이다(c)	108	3.00	.848			
	만족한다(d)	24	3.00	.758			
	매우 만족한다(e)	9	3.62	.869			
	합계	298	2.96	.818			

*** $p<.001$

<표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유무/ 취업 유형에 따른 삶의 질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취업유무에 따른 삶의 질은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2.98점, 취업을 한 경우가 2.96점으로 나타나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취업을 한 경우보다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취업 유형에 따른 삶의 질은 교육 복지형이 3.06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익형이 3.03점, 시장형이 2.82점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p>.05$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취업활동 취업만족도에 따른 삶의 질은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3.62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하는 경우가 3.00점, 보통이 3.00점,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2.98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2.33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F=4.766$,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설 7. 노인의 취업 참여유무, 사회적 자본은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의 취업 유무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통제변인을 투입한 모델1은 설명력(R제곱)은 총분산의 5.6%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4.598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는 설명력(R제곱)은 총분산의 14.1%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6.917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델3은 설명력(R제곱)은 총분산의 16.1%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7.394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B=.103$, $p<.05$)은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보다 여자일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사회적신뢰($B=.134$, $p<.05$)은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신뢰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4-18> 노인의 취업 유무,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F	유의 확률	R ²
		B	표준 오차	베타					
모델1	(상수)	2.055	.270		7.602	.000	4.598***	.000	.056
	성별	.225	.081	.134	2.764**	.006			
	연령2	.047	.032	.068	1.475	.141			
	배우자유무	.035	.080	.021	.432	.666			
	교육수준	.128	.034	.175	3.710***	.000			
	건강상태22	.120	.057	.097	2.109*	.035			
	자녀와의 동거	-.097	.066	-.067	-1.475	.141			
모델2	(상수)	1.068	.321		3.325	.001	6.917***	.000	.141
	성별	.140	.079	.084	1.766	.078			
	연령2	.006	.031	.009	.191	.848			
	배우자유무	.039	.077	.023	.506	.613			
	교육수준	.059	.035	.081	1.668	.096			
	건강상태22	.074	.055	.060	1.342	.180			
	자녀와의 동거	-.036	.064	-.025	-.567	.571			
	사적신뢰	.147	.061	.123	2.407*	.016			
	공적신뢰	.093	.055	.082	1.679	.094			
	사회적참여	.180	.045	.202	4.014***	.000			
	정치적참여	.043	.055	.036	.773	.440			
모델3	네트워크	.000	.002	.005	.111	.911	7.394***	.000	.161
	(상수)	1.032	.318		3.246	.001			
	성별	.173	.079	.103	2.179*	.030			
	연령2	-.029	.033	-.041	-.882	.378			
	배우자유무	.014	.076	.008	.178	.859			
	교육수준	.047	.035	.064	1.323	.187			
	건강상태22	.100	.055	.081	1.817	.070			
	자녀와의 동거	-.047	.063	-.033	-.742	.459			
	사적신뢰	.162	.061	.134	2.659**	.008			
	공적신뢰	.136	.056	.119	2.413*	.016			
	사회적참여	.197	.045	.221	4.421***	.000			
	정치적참여	.054	.055	.045	.985	.325			
	네트워크	.000	.002	-.006	-.135	.893			
	취업유무	-.262	.079	-.162	-3.317***	.001			

*p<.05,**p<.01,***p<.001

공적신뢰(B=.119, p<.05)은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적신뢰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참여(B=.221, p<.001)은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참여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취업유무($B=-.162$, $p<.001$)은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을 하고 있을수록 삶의 질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제 4 절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의 검증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표 4-19>에서 제시된 조건들이 충족되면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회귀식 ②에서보다는 회귀식 ③에서 더 작아진다($\beta_2 > \beta_3$). 회귀식 ③에서 매개변수가 투입되어 종속변수(Y)에 대한 독립변수(X_1)의 영향력이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이는 잠정적인 매개변수(X_2)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강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이 매개가설 검증을 위한 필수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

<표 4-19>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 검증의 조건

회귀식	조 건
① $X_2 = \alpha_1 + \beta_1 X_1$	회귀식 ①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β_1 이 유의해야 한다.
② $Y = \alpha_2 + \beta_2 X_1$	회귀식 ②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β_2 가 유의해야 한다.
③ $Y = \alpha_3 + \beta_3 X_1 + \beta_4 X_2$ ⑥	회귀식 ③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β_4 가 유의해야 한다.

6) 주) X_1 :독립변수, X_2 :잠정적인 매개변수, Y:종속변수, α :상수, β :표준화된 회귀계수

β_1 : 회귀식에서 종속변수를 사회적 자본으로 했을 때 독립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

β_2 : 회귀식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

β_3 : 독립변수를 사회적 자본과 해당 독립변수를 포함시켰을 때, 해당 독립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

β_4 : 독립변수를 사회적 자본과 해당 독립변수를 포함시켰을 때, 사회적 자본의 표준화 회귀계수

자료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1177.

가설 8. 노인의 취업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자본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노인의 취업활동 만족도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자본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표4-2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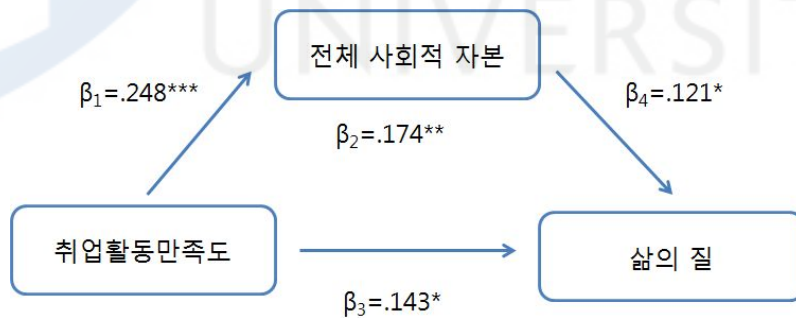
<표4-20> 노인의 취업활동 취업만족도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 매개효과)

매개변수	모형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매개조건 충족	F	유의 확률	R 제곱
		β						
전체 사회적 자본	1단계	.248	4.421	.000	○	19.543***	.000	.062
	2단계	.174	3.036	.003	○	9.218**	.003	.030
	3 단계	독립	.143	.015	○	6.781***	.001	.044
		매개	.121	.040	○			
사적 신뢰	1단계	-.068	-1.170	.243	×	1.369	.243	.005
	2단계	.174	3.036	.003	○	9.218**	.003	.030
	3 단계	독립	.191	.001	○	16.156***	.000	.099
		매개	.262	.000	○			
공적 신뢰	1단계	-.080	-1.390	.165	×	1.933	.165	.006
	2단계	.174	3.036	.003	○	9.218**	.003	.030
	3 단계	독립	.187	.001	○	9.236***	.000	.059
		매개	.170	.003	○			
사회 적 참여	1단계	.100	1.735	.044	○	3.010	.044	.010
	2단계	.174	3.036	.003	○	9.218**	.003	.030
	3 단계	독립	.140	.011	○	23.416***	.000	.137 <표 계속>
		매개	.329	.000	○			

매개변수	모형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매개조건 충족	F	유의 확률	R 제곱
		β						
정치적 참여	1단계		.491	.624	×	.241	.624	.001
	2단계		3.036	.003	○	9.218***	.003	.030
	3단계	독립	2.989	.003	○	7.571***	.001	.049
		매개	2.403	.017	○			
네트워크	1단계		4.336	.000	○	18.799***	.000	.061
	2단계		2.817	.005	○	7.934**	.005	.027
	3단계	독립	2.355	.019	○	5.161**	.006	.064
		매개	3.533	.026	○			

p<.01,*p<.001

사회적 자본 요인 중 전체적인 사회적 자본, 사회적 참여, 네트워크는 노인의 취업활동 만족도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그림 4-1]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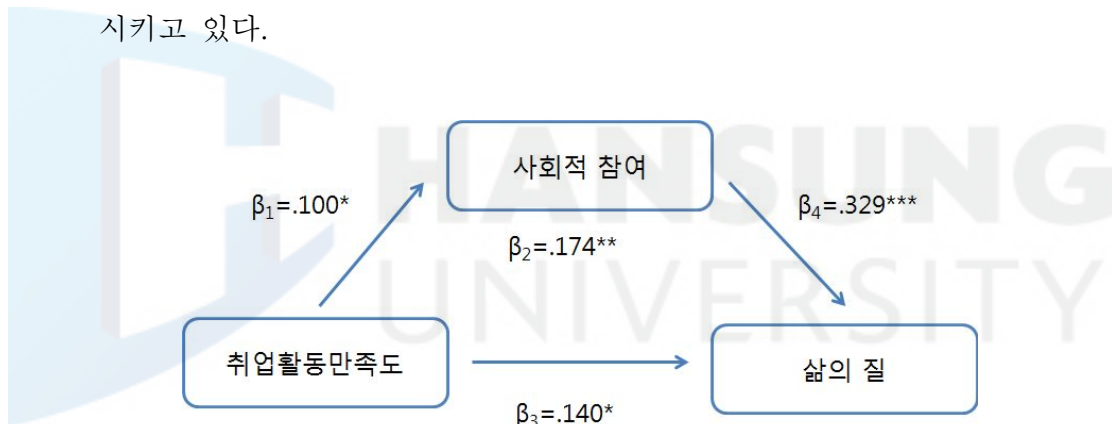
(β : 표준화 회귀계수, *** : $P < .001$)

[그림 4-1] 취업활동 만족도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네트워크의 매개효과

전체 사회적 자본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취업 활동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beta_1 = .248$, $p < .001$)인 것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한 Reduced 모형의 회귀분석에서 취업 활동 만족도는

$\beta_2=.174$, $p<.01$ 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회적 자본을 추가하여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한 Full 모형에서 사회적 참여는 삶의 질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beta_4=.121$, $p<.05$)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취업 활동 만족도의 영향력($\beta_3=.143$, $p<.05$)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취업 활동 만족도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참여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취업 활동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beta_1=.100$, $p<.05$)인 것으로 나타나서 [그림 4-2]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β : 표준화 회귀계수, ***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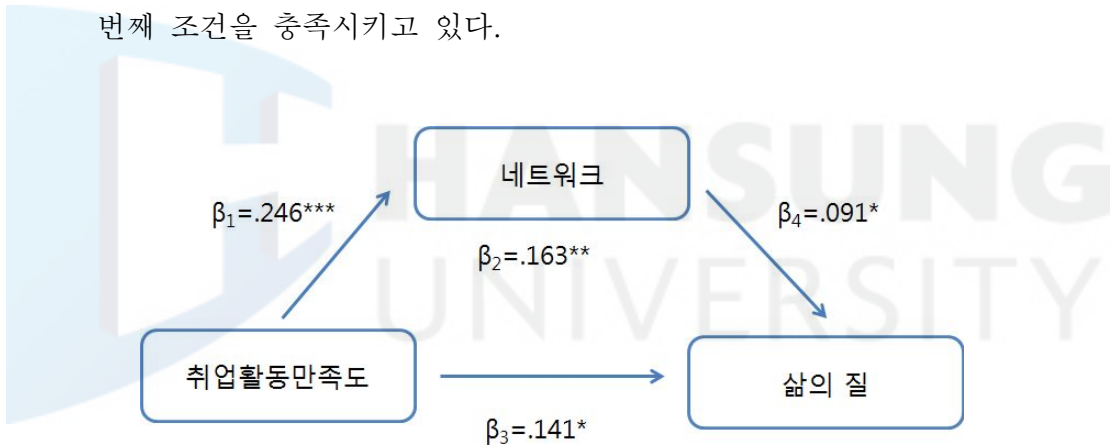
[그림 4-2] 취업활동 만족도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참여의 매개효과

또한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한 Reduced 모형의 회귀분석에서 취업 활동 만족도는 $\beta_2=.174$, $p<.01$ 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참여를 추가하여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한 Full 모형에서 사회적 참여는 삶의 질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beta_4=.329$, $p<.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취업 활동 만족도의 영향력($\beta_3=.140$, $p<.05$)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취업 활동 만족도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취업 활동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beta_1=.246$, $p<.001$)인 것으로 나타나서 [그림 4-3]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한 Reduced 모형의 회귀분석에서 취업 활동 만족도는 $\beta_2=.163$, $p<.01$ 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를 추가하여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한 Full 모형에서 사회적 참여는 삶의 질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beta_4=.091$, $p<.05$)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β : 표준화 회귀계수, *** : $P<.001$)

[그림 4-3] 취업활동 만족도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네트워크의 매개효과

또한 삶의 질에 대한 취업 활동 만족도의 영향력($\beta_3=.141$, $p<.05$)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네트워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취업 활동 만족도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취업활동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 ‘사회적 자본’이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특히 노인의 취업활동이 삶의 질에 이르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 즉, 매개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종류의 자원이 있는지 등 보다 폭넓은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강북지역 6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취업활동 유무 및 유형의 분포를 반영하여 500명을 조사하였다. 독립변수는 취업활동 유무 및 유형, 취업만족도이며 종속변수는 주관적 삶의 질(삶의 만족감)이다. 3개의 연구과제 하에 8개의 가설을 선정하였다. 연구과제 1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노인 취업활동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연구과제 2에서는 노인 취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과제 3에서는 노인 취업활동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관계에 사회적 자본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자본의 매개효과분석은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방법을 따랐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32.9%, 여성이 67.1%로 여성분포가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70세 이하 연령대의 노인이 43.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71~75세 연령대가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6세 이상 노인은 25.6%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존재하는 노인이 66.7%,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노인이 33.3%로 나타났다. 교

육 수준은 최종학력이 중·고등학교 졸업인 노인이 4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초졸이 38%, 대학졸이 12.8%, 대학원졸은 2.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월 소득으로 1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이 4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5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이 34.8%, 10만 원 미만은 10.6%, 1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은 7.7%, 300만 원 이상 3.0%를 보이며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가진단의 형식을 이용해 질문한 결과, 건강한 편이라고 답변한 노인이 45.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보통이라고 답변한 노인은 44.5%, 건강하지 못하다는 답변은 9.6%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는 노인이 54.9%, 동거 중인 노인이 40.9%였으며, 자녀가 없는 노인이 4.3%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 취업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취업 중이 60.8%, 취업 중이 아닌 경우가 39.2%다. 취업의 유형을 보면 교육·복지형에 취업 중인 노인이 35.1%, 공익형이 33.8%, 시장형은 31.1% 순이다. 또한 취업만족도에 있어 만족하지 않거나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52.5%를 차지했다.

셋째, 개인특성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력과 소득 그리고 건강상태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자녀와의 동거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취업 만족도의 경우 남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60세 이상~70세 이하가 가장 높고 배우자가 있으며 건강한 경우 취업만족도가 높다.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노인과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의 취업만족도가 높았다.

넷째, 사회적 자본의 경우 사적신뢰와 공적신뢰, 사회적 참여와 정치적 참여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고, 취업을 하지 않은 노인보다 취업을 한 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더 높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취업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적 참여와 네트워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사적신뢰, 공적신뢰, 정치적 참여는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삶의 질의 차이에서도 취업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취업유무와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선행연구와 달리 취업 유무는 삶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 중인 노인일수록 자신의 삶의 질이 낮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검증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자본 요인 중 전체적인 사회적 자본, 사회적 참여, 네트워크는 노인의 취업 활동 만족도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회적 자본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취업 활동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beta_1=.248$, $p<.001$)인 것으로 나타나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한 Reduced 모형의 회귀분석에서 취업 활동 만족도는 $\beta_2=.174$, $p<.01$ 로 나타나,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회적 자본을 추가하여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한 Full 모형에서 사회적 참여는 삶의 질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beta_4=.121$, $p<.05$)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취업 활동 만족도의 영향력($\beta_3=.143$, $p<.05$)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취업 만족도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참여와 네트워크도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취업만족도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취업유무는 노인의 삶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을 하지 않은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취업활동의 독립변수 중 취업만족도만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며, 증가된 사회적 자본에 의하여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 이기홍(2005), 최은희(2007)와 유사한 점이 있었다.

제 2절 정책적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취업만족도와 사회적 자본의 양을 높여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논문의 가설7, <표4-18>에 의하면 취업을 하지 않은 노인보다 취업 중인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다른 독립변수인 취업만족도는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즉 이는 취업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만족도 있는 취업활동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논문 연구 대상, 노인 대부분은 노인종합복지관이 알선한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다. 이는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둘째, 본 논문 가설6, <표4-17>에 의하면 취업만족도가 높으면 삶의 질도 높아, 취업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 노인의 54.5%는 월 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의 노인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취업만족도는 생계와 관련있는 경제적 소득이며, 10.7%에 해당되는 150만 원 이상 노인은 소득원으로서의 취업보다는 건강,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활동으로서 취업만족도의 욕구가 강하다. 취업유형을 보면 교육·복지형을 선택한 노인 중 3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노인이 70%이고,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은 83.7%에 해당한다. 취업활동에 참여한 비율을 보면 150만 원 이상 월평균 소득노인은 10.7%이며, 대학졸업 이상 학력 노인은 15.6%다. 이와 같이 개인별 특성에 따라 취업욕구를 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욕구에 기반한 취업만족도 중심의 취업정책과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현재 노동시장 내에서 노인 취업이 가능할 수 있는 인프라가 빈약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노동시장에서 은퇴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데, 현 제도에서 정년에 해당하는 55세 혹은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가 은퇴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정년을 71세 이후로 연장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 <표4-8>에 의하면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취업 노인의 취업만족도는 11%에 불과하다. 그러함에도 취업만족도가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친 영향, 특히 노인의 취업활동이 삶의 질에 이르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 즉, 매개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회적 자원망인 네트워크와 지역사회단체의 참여도가 상당히 낮고, 공적 신뢰의 수준 또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점은 사회적 자본이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중요한 변수로 삶의 질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수준과 네트워크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 참여를 통해서 비로소 협력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화의 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행사참여를 높여야 한다. 이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 단체에 가입한 노인이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표본추출을 함에 있어 본 연구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연구대상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보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 정리, 측정수준, 그리고 활용목적에 따라 측정도구가 매우 상이하고, 표준화된 척도나 도구가 부족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답습한 면이 있다. 이후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특히 노인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한 척도를 개발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시점인 2011년 현재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하는 2018년에 노년층이 되는 현재의 준고령층은 조사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았다. 차후에 현재 50대인 준고령층(예비 노년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미래의 노인들이 추구하는 취업활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취업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현재 어떤 제반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참여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어질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유진(2010), 「가족소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족과 학교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제21권 3호, pp.324-339.
- 고대선·원영신,(2005),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 『한국사회체육학회지』 한국사회체육학회, 제24호, pp.413-424.
- 고승덕(1996),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 구혜정(2002),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대안적 평생교육 탐색」,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 권중돈(2004),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권중돈·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한국노년학회, 제20권 3호, pp61-76.
- 김미혜·신경림(2005),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한국노년학회, 제25권 2호, pp.35-52.
- 김 옥(2006), 「경로당 이용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영향요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서울: 평화당, 제32권, pp.271-293.
- 김용택 외(2003),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의 구성요인과 측정도구 분석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제 22권, pp.313-331.
- 김용학(2004), 『사회 연결망 이론』, 서울: 박영사.
- 김익기 외(1999),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 김애련(2001),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 김애순(2000), 「은퇴와 노년기 일의 의미」,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 한국노인문제연구소, pp.163-189.

- 김영란(2007), 「취업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계간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회, 제17권, pp.70-96.
- 김종미(2004), 「중산층주부의 여성주의 정치학과 사회자본 창출에 관한 연구: 서울소재 M여성단체 D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나향진(200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여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한국노년학회, 제24권 1호, pp.53-70.
- 남기민·최화강(2009), 「취업노인의 생산적 활동요인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인복지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통권45호, pp.347-371.
- 노정옥(2004), 「노인의 일반 및 취업관련 특성과 삶의 만족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라진구(2009), 「고령자 재취업 및 직종선택의 결정요인과 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 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문정란(2010), 「노인의 생산적 활동실태와 화폐적 가치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민재성(2001), 「21세기 사회보장 문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4호, pp.9-18.
- 박경란·이영숙(2001), 「청소년과 중년이 갖고 있는 노인의 고정관념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6호, pp.221-239.
- 박경란·이영숙(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제 22권 3호, pp.53-66.
- 박기남 외(2005), 「성별·지역별 특성에 따른 노인의 삶의 만족도 연구」, 『여성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pp.1-30.
- 박길성(2002),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아세아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제45권 2호, pp.109-139.
- 박상철(2003), 『고령화 사회에서 삶의 질』, 서울: 아산사회복지재단.
- 박석돈(1997), 「노인육구 변화와 고령자 고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노인학연구』, pp.3-49.
- 박은숙(1998), 「노인의 건강증진 행위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

- 인」, 『대한간호학회』, 제 28권 3호, pp.648-649.
- 박재간·홍미령(2001) 「노인취업 관련 사업의 활성화 방안」,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제11권 1호.
- 박주월(2009),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노인취업 지원기관 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박주현(2001), 「노인의 취업욕구에 대한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논문.
- 박찬웅(2000), 「사회적 자본, 신뢰, 시장」,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pp79-110.
- 박태정(2007),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자활사업의 발전방안」,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 박희봉(2001), 「조직 내 사회자본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박희봉 외 (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 『한국행정논집』 한국정부학회, 제17권 3호, pp.709-728.
- 박희봉·김명환(2000),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475-495.
- 배나래·박충선(2009),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9권 2호, pp.761-779
- 배호준(2004), 「고령인력활용 정책의 평가와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백은령(2003), 「지체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백지은(2008), 「한국노인의 전통적 가치관에 따른 성공적 노화인식 차이」, 『한국노년학』, 제 28권 2호, pp.227-249.
- 백지은·최혜경(2005), 「한국 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유형 및 예측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23권 3호, pp.1-16.
- 서병숙·오경숙(1990), 「활동을 중심으로 한 노후 적응」, 『한국노년학』, 제10권 10호, pp.125-145.
- 성혜영·유정현(2002),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

- 국 노년학』, 제22권 2호, pp.75-93.
- 성혜영·조희선(2005), 「Row와 Kahn 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성공적 노화 모델」, 『한국노년학』, 제 28권 1호, pp.105-123.
- 소진광(2004),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 중소기업지원, 노동, 통계 분야」, 『한국지방자치학회』, pp.107-139.
- 손화희 외(2000), 「거동불편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생태학적 접근」, 『한국노년학』, 제20권 1호, pp.93-112.
- 송경재(2005), 「인터넷 사회자본 연구의 동향과 과제」, 『정보화정책』 한국전산원 정보화 기획단, 제12권 4호, pp.3-22.
- 신도철(1981), 「한국인의 삶의 질 연구: 주관적 지표에 의한 분석」, 『정경문화』 경향신문사부설5월호, pp.26-47.
- 양민희(2009),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과 주관적 삶의 질」,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유석춘·장미혜(2002),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발전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제8집, pp.87-125.
- 윤순덕·한혜경(2004),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회』, 제24권 2호, pp.57-77.
- 이경은·주소희(2008), 「가족내외의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제13 권 3호 pp.113-131.
- 이광래(2003), 「고령화 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제주 관광대학논문집』, 제9권, pp.153-164.
- 이기홍(2005), 「한국노인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한국노년학』 한국노년학회, 제25권 3호, pp.1-21.
- 이봉주·김광혁(2009), 「학교생활이 즐거우면 성적도 오를까?: 학교만족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회, 제61권 4호 pp.287-306.
- 이선정(2005), 「퇴직한 남자 노인의 생활활동 유형과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이선혜·이정섭(2002),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개념분석」, 『정신간호학회지』 대한간호학회정신간호학회. 제11권 4호, pp.588-595.

- 이영숙(2007), 「노인의 취업성향에 관한 연구 : 취업노인과 비 취업노인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3권 16호, pp.285-298.
- 이재훈·김경근(2007) 「가족 및 학교 내 사회자본과 학업성취 가족 및 학교 내 사회자본과 학업성취」, 『한국교육학연구』 안암 교육학회, 제 13권2호, pp.175-208.
- 이정규(2009), 「삶의 만족감과 사회적 자본 : 시민적 참여, 신뢰,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 연구』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제22집, 6-41.
- 이지현(2008), 「취업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울지역 남성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인학회』, 제28권 1호, pp.43-156.
- 임우석(2009), 「사회적 자본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계의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임주영(2009), 「노인의 스트레스와 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위협적 상황 인지와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이현기(2009), 「생산적 노화활동으로서 노인자원봉사활동 : 인적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pp.317-346.
- 이혜자(2003), 「대도시 여성노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인구학적 관련변인: 심리적 복지감감과 우울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통권22호, pp.127-150.
- 이훈구(1997), 『행복의 심리학』, 서울: 범문사.
- 장유미(2011),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가 사회적 자본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정경희 외 (2005), 「2004년도 전국노인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윤주,(2007) 「생산적 활동이 여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요구-조절-지지 모델의 적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 조명한·차경호(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조세환·오휘영(1993),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분석- 경주시 사례연구」,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28권 4호, pp161-182.
- 조화순·송경재(2004), 「인터넷을 통한 시민 정책참여」 『한국행정학회』, 제38 5호, pp.197-214
- 조해경(2002),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노인들의 성인학습을 통하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학위.
- 최성재(2002), 「생산적 노화를 위한 복지정책 방향」, 『한국사회복지학회』, 제22권 2호, pp.183-207.
- 최성재(2002), 「장수의 사회적 및 심리적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년학』, 제22권 2호, pp.183-207.
- 최수정(2001), 「도구개발을 통한 한국노인의 질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최은희(2007), 「노인 일자리사업이 참여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 최종렬(2004),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 사회자본 개념의 이념형적 구성」, 「한국 사회학」, 제38집 제6호, pp.97-132.
- 최혜경(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 가족부양 체계를 중심으로 한 인과모형의 집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하재구(1986), 「서울시민의 삶의 질 실태와 시정부의 공공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하태중(2006), 「고용자 고용문제와 고용대책에 관한 연구 : 서울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한상미(2007,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자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 허준수(2006), 「도시지역 미취업 노인들의 취업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1호, pp.291-318.
- 한형수(2008), 「노인의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만족도에 관

- 한 연구」, 『노인복지 연구』, 통권39호, pp.347-372.
- 홍숙자(1999), 「중년기 여성의 노후설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논문.
- 홍현방(2002), 「성공적인 노화 개념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홍현방·최혜경(2003), 「성공적인 노화 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1권 2호, pp.145-154.
- 황진수(2005), 『노인복지 정책론』, 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 황진수·고재욱(2010), 『노인복지론』, 서울: 양서원.

2. 국외문헌

- Atchley, R. C.(1993). Continuity theory and the evolution of activity in later adulthood. In J. R. Kelly(Ed.), *Activity and Aging : Staying Involved in Later Life*. Newbury Park, CA : Sage.
- Baltes, P. B. and Baltes, M. M.(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s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and M. M. Baltes, (Eds.), *Successful Aging :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1-34), Cambridge, UK : Cambridge Univ. Press
- _____ (1993). *Successful Aging -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nett, R. C., Marshall, N. L. & Singer, J. P.(1992). Job experiences over time, multiple roles, and womens' mental health: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634-644.
- Bass, S. Caro, F. G., & Chen, Y. P. (eds).(1993). *Achieving a Productive Aging Society*. Westport, CT: Auburn House.

- Bass, A. (Ed.). (1995). *Older and Active: How Americans over Age 55 are Contributing to Socie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Bengtson, V. L. & Kuypers, L.(1985). The family support cycle: psychosocial issues in the aging family. In J. M. A. Munnichs, P. Mussen, E. Olbrich, & P. G. Coleman (Eds.), *Life-Span and Change in a Gerontological Perspective*. San Diego: Academic Press. pp. 257-273
- Blasi, Anthony J.(1999). *Organized Religion and Senior's Mental Health*. New York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 Blau, Z. S.(1973). *Old Age in a Changing Society*, NY : Franklin Wattss Inc.
- Bourdieu, P.(1986). Form of capital. in J.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Burt, R. S.(1998). Now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ew York: Russell Sage.
- Cannuscio, A., Block, J., & Kawachi, I. (2003). Social capital and successfulaging: the role of senior housing. *Annals of Internal Medicine*,
- Cohen, Jean(1999). "Trust, voluntary association and workable democracy: the contemporary American discourse of civil society." Mark E. Warren(ed), *Democracy and Trus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eman, James(1990). *The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Cumming, E. and Henry, W. (1961). *Growing Old : The Process of Disengagement*. New York : Basic Books.

- Diener, E. & Emmons, R. A.(1985).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Diener, E, Suh, E., Smith, H., & Shao, L.(1995). National differences in reported subjective well-being: Why do they occur?. *Social Indicator Research* 34. 7-32.
- Elliott, E. C. (1997). *Lessons from a Life : An Analysis of Successful Aging*, M. A. Thesis. California State University-Fullerton.
- Featherman, D. L., Smith, J. and Peterson, J. G. (1991). Successful aging in a post-retired society. In Baltes, P. B. and Baltes, M. M.(Eds.). *Successful Aging :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pp. 50-93
- Felce, David and Perry Jonathan.(1996). Assessment of Quality of Life. In Schalock, Robert L. and Siperstein, Gary N.(eds.) *Quality of Lif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 Freedman, M. (2001). Structural lead: Building the new institutions for an aging America. In N. Morrow-Howell, J. E. Hinterlong, & M. W. Sherraden (Eds.), *Productive Aging: Concepts and Challeng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anifan, Lyda(1916). The Rural School Community Cente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7. 130-138.
- Havighurst, R. J.(1963). Successful Aging. In C. Vedder, ed. *The Gerontology*. I11 :Charles C. Thomas Publisher, 67-76
- _____ (1972). *Developmental Task and Education*(3rd ed.), NY : David Mckay.
- Hendricks, J., & Hendricks, D. C.(1981). *Aging in Mass Society*(2nd ed.), Cambridge, MA : Winthrop Press.
- Hooyman, N. R. & Kiyak, H.S.(1999) *Social Gerontology*. Allyn and Bacon.

- Kelly(1996). *Leisure(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Klemmack, K. B., L. A. Porter, L. Roff(1984). Fear of personal ag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39, 756-758.
- Koenig, Harold G.(1995). Religion and health in later life.
in Melvin A. ed. *Aging, Spirituality, and Religion: A Handbook*. Minneapolis: Fortress press. pp. 9-29
- Lee, K. S. & Seo, H. S.(1999) *Social Gerontology*. Allyn and Bacon.
- Lemon, B. W., Bengtson, V. L. & Peteron, J. A. (1972). 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ctivity types and satisfaction among the 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27.
- Lin, Nan(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nnell, R. C., & Dupuis, S.(1996). Life satisfaction. In J. E. Birren(Ed.), *Encyclopedia of Gerontology*. New York : Academic Press.
- Miller, L., P. Wickramaratne. & M. Weissman. (1997). Religiosity and depression: ten-year follow-up of depressed mothers and offspring. *Journal of American Child and Academy Psychiatry*. 36.
- Palmore, E. B.(1981). *Social Patterns in Normal Aging: Findings from the Duke Longitudinal Study*. Durham : Duke University Press.
- Peter D. Hart Research Associations.(1999). *The New Face of Retirement: Older Americans, Civic Engagement, and the Longevity Revolution*. New York: Author.
- Putnam, Robert(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ice, R. W., & Miller, M. D. (1990). Developing a model for the study of Quality of life in elderly patients with chronic

- disease: Use of hypertension as an example. *Southern medical Journal*, 83(8).
- Rowe, J. W. & Kahn, R. L.(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 Pantheon
- Rowe, J. W. and Kahn, R. 최혜경, 권유경 공역(2001), 「성공)적인노화」, 서울: 학지사.
- Ryff, C. D., & Keyes, C. L. M.(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 Schulz, J. (2001). Economics perspectives on productive aging. In N. Morrow-Howell, J. Hinterlong, & M. Sherraden (Eds.). *Productive Aging: Concepts and Challenges*. Bal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Veenhover, R.(1991). Question on Happiness: Classical Topics, Modern Answers Blind Spot. In F. Strack, M. Argyle, & N. Schwartz(Eds.), *Subjective Well-Being*. New York: Pergamon Press.
- Whiteley. P. E.(2000).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부 록)

< 설 문 지 >

노인의 취업활동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연구조사 설문지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는 오직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조사를 합니다. 어르신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연구자 장 백기

지도교수 황 진수

(문의 사항은 010 - 9575 - 403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사회적 자본)

**1. 어르신께서는 다음에 제시되는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하세요.**

구분	①전적으로 믿음	②대개 믿는 편	③ 보통	④믿지 않는 편	⑤전혀 믿지 않음
가족					
친척					
친구					
같은 종교 신도					
취미 모임 회원					
이웃					

2. 어르신께서는 아래에 제시되는 기관을 신뢰하십니까?

모든 기관의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하세요.

구분	① 전적으로 믿음	②대개 믿는 편	③ 보통	④믿지 않는 편	⑤전혀 믿지 않음
국회					
법원					
정부					
서울시청					
구청					
동사무소					
경찰					
시민단체(대한노인회,바르게살기운동본부,자유총연맹,사회복지단체,기타 시민단체)					
교육기관					
언론기관					
종교단체					

3. 어르신께서는 아래 지역사회단체나 모임에 가입 하셨습니까?
가입하셨다면 모임에 참석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하세요.

구 분	①가입하지 않음	② 별 로 활 동하지 않 음	③절반정 도(보통)	④ 절 반 은 넘게 (비 교 적 적극적)	⑤ 거 의 매변 나 감 (매 우 적극활 동)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자선·봉사모임/단체					
종교단체					
친목·취미모임/단체(등 산모임,계모임, 부녀회, 전직장 직원모임,스포 츠레저모임,동호회 등					
시민단체(대한노인회, 바르게살기운동본부,자 유총연맹,사회복지단체, 기타 시민단체)					

4. 작년 서울시장, 구청장, 교육감 선거 와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셨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하세요.

- ① 3번 모두 참가했다() ② 두번 참가했다()
③ 1한번 참가했다() ④ 모두 불참했다()

5. 어르신께서는 정치현금, 정당 후원금, 탄원서/청원서 서명, 집회
나 시위에 참여 등 적극적 정치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세요.

- ① 매우 적극적 참여() ② 비교적 참여하는 편()
③ 별로 참여하지 않음() ④ 전혀 참여하지 않음()

6. 어르신께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몇 명 까지 가능합니까?

상황 내용	같이 살지 않는 자녀나 가족	이 웃	친 구	같은 종교 신도	친목, 취미 모임회원
용돈을 받거나 간단한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있습니까?	명	명	명	명	명
고민이나 걱정이 있을 때 조언이나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 니까?	명	명	명	명	명
취업에 대한 정보나, 민 원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	명	명	명	명

7.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하세요.

설 문 내 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내 인생은 내가 꿈꿔왔던 것과 비슷 하게 살아가고 있다.					
나의 생활 여건들은 아주 좋은 편이 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하여 만족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했던 중요한 것들은 성취해왔다.					
만약 내 삶을 다시 살아가더라도,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 다.					

8. 어르신께서는 현재 취업 중에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세요.

① 취업 중이다()

② 취업 중이 아니다()

9. 어르신께서 하고 계신 취업은 아래 보기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하세요.

√ 표시 하는 곳	구 분	일자리 예시
	공익형	거리환경지킴이, 자연환경지킴이, 지역행정지킴이, 불법주차단속·계도 등
	교육·복지형	공원관리원, 청사관리원, 주유원, 식당보조원, 매표원, 급식지도원, 주례, 가사도우미, 청소원, 주차관리원, 학교내 학습장 관리 등
	시장형	간병인 사업단, 지하철택배사업단, 세탁방, 도시락사업, 재활용품점, 번역·통역사업, 실비용품점 운영, 전통공예, 문화상품 제작판매 등

10. 어르신께서 하고 계신 일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하세요.

- ① 매우 불만족하다() ② 대체로 불만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만족하다() ⑤ 매우 만족하다()

다음 해당되는 (√) 표시해 주십시오.

1. 성 별	①남 () ②여 ()
2. 연 령	①60-64세() ②65-70세() ③71-75세() ④76세-80세() ⑤81-85세() ⑥86세 이상()
3. 배우자 유무	① 있다 () ② 없다()
4. 교육 수준	①초등학교졸 () ②중·고등학교졸() ③대학교졸() ④대학원 이상()
5. 월평균 소득	자녀와 친척이 준 용돈, 월급, 연금, 이자 등을 합한 총소득을 말함. ① 10만원 미만() ②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③ 5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④ 150만원 이상 -300만원미만() ⑤ 300만원 이상 ()
6. 건강 상태	①건강한 편이다() ②보통이다() ③건강하지 못하다()
7.자녀와의 동거	①동 거 () ②별 거 () ③ 자녀 없음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Elderly's Employment Activity on Their Subjective Quality of Life.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Jang, Baeg-Gi
Major in Public Science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factors that directly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s employment status and their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to focus on the process of the mechanisms that effect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For this study 500 people aged 60 and over senior welfare centers in the *Gangbuk* district of Seoul were surveyed. Whether or not they are employed and the type of work and job satisfaction are the independent variable while their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 independent variable. The mediated effect analysis of social capital has been previously studied by Baron and Kenny(1986).

The main results of research are summarized below.

First, in divergence on social capital as to whether they are employed or not, the aged employed shows a higher divergence

than the unemployed aged in social capital including private trust, public trust, soci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Second, in the divergence on the quality of life as to whether they are employed, the employed seem to have a higher quality of life than those without employment.

Next, among those employed, those who work in the education and welfare fields have the highest quality of life. Non-profit field and the retail type follow.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of employment and the quality of life appears to show a positive correlation. It shows that the higher satisfaction in employment, the higher the quality of life.

Fifth,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trust and the quality of life indicates a positive correlation. Therefore, the higher private trust, the higher the quality of life.

Next,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trust and the quality of life also indicates a positive correlation. Hence, the higher public trust, the higher the quality of life.

Next,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indicates a positive correlation so, the higher social participation, the higher the quality of life.

Eighth,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also indicates a positive correlation. Therefore, the

higher political participation, the higher the quality of life.

Last, social capital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ed effect on satisfaction by participating employment activity of the aged and their subjective quality of life. Therefore, it can be claimed that the satisfaction by participating employment activity of the aged increases the social capital and increased social capitals affect positively on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